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역사세계에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눈먼 소경이 되어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자를 타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자각 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부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입으로 생령로 증거하는 중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이다 (시편 14: 1)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06호 2012년 10월 20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무종교인=교회 안다니는 사람' 젊은층 회귀 기대

퓨포럼 설문조사 "미국, 더 이상 기독교국 아니다" 경악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로 불리며 미국을 건국한 기독교도(Protestant)는 미국 대다수를 차지하며 사실상 미국의 국교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조사기관 퓨포럼이 발표한 조사결과("Nones" on the Rise :One-in-Five Adults Have No Religious Affiliation)에 따르면 전체 개신교도의 비율이 미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수 미만인 48%를 기록했다고 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본지 10월 13일자 제1405호 6면 참조).

미 연방대법원 판사 중 개신교 출신이 전혀 없고 미국의 전통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마저도 몰몬교 출신인 미트 롬니가 선출되는

등 기독교의 쇠퇴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유럽에서 이민 온 백인개신교인(WASP)이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기독교의 영향력 감소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예고됐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그 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하는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따라서 CNN, ABC, FOX 뉴스 그리고 영국의 BBC,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은 앞 다퉈 미국에서 개신(기독교)교인의 과반수 미달을 "충격" 또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퓨포럼은 공영방송 PBS와 함께 6월28일부터 7월9일 사이에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48%(오차범위 ±0.9%)만이 자신을 개신교도라 밝혔다. 전국의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는 '기독교 국가'로 불리는 미국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는 징후로 일부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영국의 BBC나 가디언 등 지구촌 미디어들이 미국의 개신교인 과반수 미달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미국만이 선진국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50% 이상을 웃도는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이다. 즉 2004년 통계로, 미국만이 '선진국 중 개신교 및 기독교 믿는 인구'가 50%가 넘는 유일한 국가였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이 향후 50% 미만에 달한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2004년 시카고대학교 전국여론조사소(NORC)의 조사에서 정확하게 제기됐다.

동 조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93-2002년 사이 개신교인임을 자임한 미국인들의 비율이 63%로부터 5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연합감리교회와 장로교회 및 성공회 같은 주류 개신교



미국이 더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통계적 숫자는 전 세계를 놀라움에 빠지게 했다.

회들은 수년 동안 교인들을 잃어왔지만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근본주의 교회들에서의 입교자 수 증가로 손실을 보전 받아왔다.

그러나 교인 수 1천600만 명 이상인 미국 최대 기독교파인 남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너무 작아 이들 교파에 입교자 수가 늘었다 해도 미국 전체 기독교인들 수의 증가엔 기여하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 남침례교단에

서조차도 교인 수가 정체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2004년 NORC조사서가 분석한 개신교인 감소의 주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무종교라고 응답한 자들의 수가 1993년의 9%에서 2002년엔 14%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많은 수가 과거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나 유대교 이외의 종교에 소속됐다고 답한 미국인들이 1993-2002

년 사이 3%로부터 7%로 증가했다. △청년들과 성인들이 대거 기독교 파들을 떠나면서 비기독교 이민자들의 수가 늘어 인구점유율을 높였다. △기독교인들로 양육되고 있는 주민들의 비율이 낮아졌다.

오늘날엔 미국 성인들의 55%가 기독교인들로 자라고 있으나 1980년대엔 이 비율이 67-68%였다. △성인이 돼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적어졌다.

결국 교회는 외면을 받게 됐고, 어떠한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종교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NORC의 예측은 이번 퓨포럼의 설문조사에 따라 증명됐다.

크리스천포스트 지는 사실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주류교단과 신학교에서 벌어진 행태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Farewell to the American Protestant Majority):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 주류교단들은 모든 신학적 유행(사신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등의 대중신학: 편집자 주)들에 사로잡혀 교단 신학교들을 비밀 막스시스트 이데올로기들로부터 성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정치 그리고 하 나남까지도 중성으로 찬미하는 예 전으로 연구하게 했다."

(3면으로 계속)

초신자 정책은 소그룹 핵심 사역!

스몰그룹닷컴, 교회정책 위한 소그룹 역할 안내

소그룹은 믿음이 어리거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토양이다. 소그룹에는 여러 중요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일, 즉 초신자들을 잘 정착시키는 일이야말로 소그룹이 가지는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그룹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 사역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소그룹 리더가 느끼기에 초신자는 기존의 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사람도 똑같은 수 없듯이 초신자들은 각기 다양한 삶의 체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체험과 배경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초신자들이 쉽게 소그룹에 적응하고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와 기존 성도들은 상당히 큰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초신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 하나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옮겨온 사람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나 기도하기, 성경읽기 등의 보편적인 신앙생활 측면에서는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예배 분위기나 성도들 간의 교제,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생소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다.

비록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교회 분위기나 영성의 색깔은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

교회생활 했나 안했나, 자발적 비자발적 등 초신자 특성 파악 우선...관심과 역량 필요

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들이 다른 교회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이 자리를 찾아왔다고 해서 쉽게 우리 교회와 소그룹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느끼는 문화충격이나 주변인 의식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소그룹 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 부류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면 아예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또는 전혀 자발적인 의사가 없는데 주위 사람들(가족이나 친우관계)에 의해서 교회생활을 비자발적으로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성경과 교회에 대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존 신자들이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방식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기존 신자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위해서는 친절하고 구체적인 교회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모두들 당신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가 반드시 기존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초신자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면으로 계속)



어플 통해 선교 제한 지역에 성경보급



"어디든지 따르라!" 예수님 강력한 초대에 부응



영적 싸움...의료법 위반사항 8지 밝혀



투고 칼럼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인터뷰 임준규 선교사

2012년 추계 대부흥성회

주제: 하나님 중심



홍민기 목사
*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일 시 추후 2012년 11월 1일(목) - 4일(주일)

저녁집회 매일저녁 오후 8시(목-토)

새벽집회 2일(금), 3일(토) 오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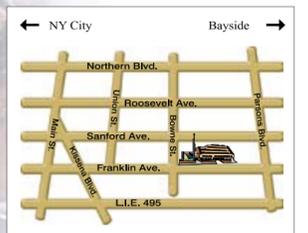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0시

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4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본당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집회도 있습니다.(금-토 저녁 8시, 주일 오후 4시)



이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박규성
교회전화 718.886.404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시론

감사로 채워가는 행복



양준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프랑스 파리의 어느 교회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며 헌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헌금접시가 돌아가고 있었고, 성도들은 각자가 준비해온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 접시가 어느 시각장애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은 1프랑도 헌금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7프랑을 접시에 세어서 놓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옆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하고 묻자, 이 시각장애인은 웃으며 "저는 눈이 안 보이지요. 그런데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저때때 불을 켜는 비용이 일 년에 27프랑이 든다고 하더군요. 나는 불을 켤 필요가 없어 일 년이면 이만큼의 돈을 저축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이 비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참 감사는 외부조건이 아니라 마음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자신이 아직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불평하며 살면 불행한 사람이고, 매우 가난해도 이미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이지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 감사하며 행복을 더해가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또한 일시적이고 작은 것은 기억하며 감사하면서도 지속적인 큰 것에 대한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직장을 얻어 일하게 되면 새 잡(job)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난로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매일 변함없이 떠올라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햇빛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크고 지속적인 은혜의 선물들, 햇빛과 공기, 일용할 양식과 건강, 기도의 응답 이전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감사하며 행복을 더해가는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받은 선물 그 자체보다 그것을 주신 분에게 먼저 감사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는 받아 쥔 선물에 모든 관심을 쏟느라 그것을 주신 분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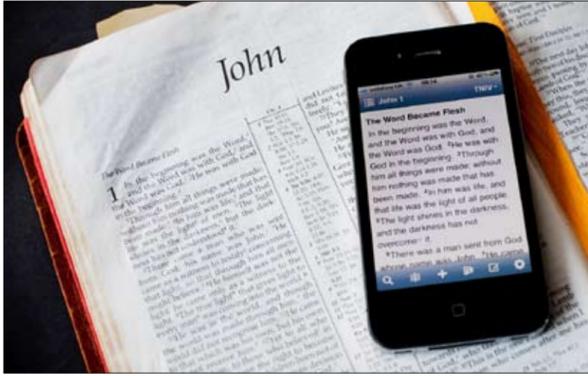
어느 창고 안에 거머들이간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좋은 곳을 발견하고 먼저 천장에서부터 한 줄을 쏙 내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거미줄(web)을 멋지게 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먹이 들어가는 먹이가 걸려 들었습니다. 늘 배불리 먹어 이제 제법 똥똥해진 거미가 어느 날 자기가 쳐 놓은 거미줄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야, 누가 쳤는지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러다 문득 가운데서부터 천장까지 연결된 한 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줄은 무엇 때문에 있지? 한 번도 먹이를 잡아내지도 못하는데..."하고는 그 줄을 툭 쳐서 끊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거미 웹(web) 전체가 다 폭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늘 위로부터 나를 붙드시고, 변함없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에게 항상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예물과 섬김으로 삶에 행복을 채워가는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플 통해 선교 제한지역에 성경 보급

미션뉴스, 덴마크 기독교출판사 미디어 선교 소개

본격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터넷을 통한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전략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는 가운데 덴마크 한 기독교 출판사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어플)을 개발하며 미디어선교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안드로이드(Android)와 킨들(Kindle)용 어플도 개발 중이다.

동 출판사의 관계자(Oressen)에 따르면 출판사의 성경 어플이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매일 60여 개국에서 성경과 성경서적이 300회 다운로드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94회, 중국에서 23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9회, 말레이시아에서 9회, 러시아에서 7회, 이집트에서 4회 다운로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날에는 사우디아

라 어린이 성경을 다운로드 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중국에서 다운로드 회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성경 다운로드의 자유화가 지속된다면 어플을 통한 중국의 성경 보급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동 출판사는 어린이와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출판사이다. 특히 어플을 통한 성경 보급은 이 출판사에 복음 전파의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출판사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서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시리즈의 1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어플을 통한 서적 구매는 우편이나 택배비용이 없으므로 인쇄된 책 구입보다 저렴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동 출판사는 현재 영어로 된 디지털 서적만을 출시했지만 다른 언어의 책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플을 다운로드 한 사용자가 자신의 언어로 녹음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인데, 이 기능을 통해 부모나 조부모가 성경 이야기를 녹음해 자녀나 손자들에게 언제든지 횡수에 상관없이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출판사는 밝혔다.

이러한 어플을 이용한 선교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실제적인 방식으로 특히 이슬람권과 공산권 선교에 잘 활용되도록 접근해야 한다.

매일 60개국서 성경/성경서적 300회 다운로드 이슬람권·공산권 선교에 활용 큰 기대

덴마크의 기독교출판사(Scandinavia Publishing House(www.scanpublishing.dk))는 85종의 어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아이폰(iPhone)과 아이패드(iPad)용 어플을 출시했는데, 이 어플이 선교 제한지역인 무슬림 지역과 공산권 지역에서의 성경보급에 기여

라비아에서만 52회 다운로드가 기록되기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레센은 지난 2010년 중국 정부로부터 어플을 통해 디지털 성경

“어디든지 따르라!” 예수님 강력한 초대에 부응

크리스천북리뷰,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팬인가 제자인가?” 소개

미국 사우스이스트크리스천교회의 교육목사인 카일 아이들먼(Kyle Idleman)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을 통해 ‘당신 스스로는 예수의 제자라고 믿지만, 실상은 팬이 아니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진다. 먼저 그는 작심하고 균형을 모으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배당을 짓지 않으셨던 예수의 모습을 서문에 배치한다. 기적에는 열광했지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를 따를 엄두를 못 내던 수많은 군중들이 떠나갈 때도 예수는 전혀 연연치 않으신다. 오히려 올바른 복음 선포와 성화보다는 교회의 성장과 성도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한 교회를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6:26)라고 싸늘하게 말씀하신다.

아이들먼 목사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토대로 팬과 제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

관계인가? 할기왕성한 모태신앙인이었던 저자는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의 사진 옆에 예수님의 그림을 나란

랐던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삶에 철저한 검증 없으면 ‘예수 지식’ 통달해도 무효 제자로 삶의 변화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말고 곧 실천

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은 이러하다. 삼말뿐인가? 행동인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많은 애인 중 한명? 단 하나뿐인 애인? △율법인가? 은혜인가?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인가? △의무인가?

히 걸어두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백한다. 가족과 함께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적어도 세권 이상의 성경책을 갖고 있으며 핸드폰 벨소리도 가스펠송으로 바꾸었지만 회생과 대가가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내심 예수의 수많은 팬들 중 하나로 묻어가기

책속에서 대표적인 예로 든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 저자에 따르면 처음 니고데모는 예수의 팬이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으로 일찌감치 예수께 열광해왔지만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인 자신이 예수의 제자로 밝혀질 것이 두려워 남들의 이목을 피해 한밤중에

야 예수를 찾았다(요3). 그러나 그는 곧 예수의 위엄 앞에 꺾어졌고, 제자와 팬으로서의 삶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다. 이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옹호하고(요7), 예수의 십자가 행렬 후 장례를 준비하는(요9) 니고데모의 모습은 그가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피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 책은 성경에서 예수가 어떤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해 환기한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처럼 예수에 대해 통달한 자라 할지라도 삶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검증이 없이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두려운 심판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은 자신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는지 의심하고 정죄하는 데 있지 않다고 저자는 말한다. 목회자인 저자가 창업하는 기업처럼 교회를 개척하려 했던 과오를 뉘우치고 ‘와서 죽으라’는 십자가 원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기까지의 변화의 과정은 개인의 결단이나 아닌 말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으로 가능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를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예수가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포)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포)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포)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목회자 설교 세미나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Azusa Pacific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이 제공하는 목회자, 신학생을 위한 설교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민교회를 이끄는 참신하고 영성깊은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나누어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물별 강해설교의 준비와 전달



김현오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설교, 역동적 복음의 선포



노진준 목사 (한길교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한규삼 목사 (뉴저지초대교회) 예배소서 강해설교 연습

일시 10월 30일 10:00 a.m. - 4:00 p.m.

장소 Garden Suite Hotel California Room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Free Self Parking)

- 등록비: \$30 (점심식사 포함)
- 등록문의: Tel. (626)857-2200 (Jenny), email: jennylee@apu.edu
- 10월 23일까지 http://koreanpastors.eventbrite.com 로 등록해주세요.





이성은 자매 안락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만호 목사(왼쪽)가 거절당한 요양원 명단을 들어보이고 있다. 옆에는 제이킴 집사.

영적 싸움...의료법 위반사항 8가지 밝혀 존엄사 논란 이성은 부친 이만호 목사 기자회견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논란 중에 있던 이성은 자매 아버지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경과를 밝히고 8가지 사항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이만호 목사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3일 전 병원 측과 면담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제이킴 집사(소망교회)는 "노스쇼어 병원에 들어간 지 43일이 됐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생겼다. 성은자매는 그가 있는 병동의 10개 병실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왜 요양원에 갈 수 없는지 심증이 있을 뿐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병원의 태도를 동포사회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8가지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스쇼어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1. 환자에게 중환자실(ICU)에서 고통완화병동(PCU)으로 이송될 때 PCU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지 않았음. PCU에서는 수면제, 몰핀(진통제)만 투여함. 2. Patient & Family Relations Dept.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행정적 절차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행하지 않았음. 3. 소수민족인에도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음. 4. 계속되는 필요 이상의 투약으로 환자를 약물중독으로 몰고 갔음. (이전 치료병원에서 투여했던 양의 100배 이상의 수면제를 투여했음). 5. 계속되는 보호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음. 6. 23곳의 요양원이 병원 소설위커와 이야기 후 환자를 거부함. 7. 비이성적인 환자에게 계속된 약물 투여를 부추김. 8. 계속되는 의사와 소설위커, 간호원의 약속 불이행으로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음.

이만호 목사는 "15일 아침 주치의가 방에 들어오더니 성은이 눈 까풀을 뒤집어보고 손으로 눈의 동공을 만지면서 거의 가망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전 11시 병원의 대표자인 수잔과 주치의와 통역자 김세형 목사(성은이 오빠)가 참석한 미팅에서 성은이가 못 깨어날 것이니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했다. 너무나 기가 막혔다. 그러나 성은이는 11시 30분경 상태가 좋아졌고 병원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기사가 나간 후 동일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셨고 해독 작용을 하는 민간약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며, "지난 9월 24일 죽었을지도 모르는 성은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시간이 갈수록 컨디션이 좋아졌었는데 병원의 횡포로 점점 힘들어 하고 디프레스가 더 심해져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 성은이는 말씀과 기도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성은자매의 병실에는 가드가 24시간 병실 문을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다. 또 성은자매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진 후 병실에는 어느 누구도 셀폰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성은자매의 안락사 반대 서명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도움을 주기 원하면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718-461-7835)나 이만호 목사(718-938-1777)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무종교인=교회 안다니는 사람' 젊은층 회귀 기대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실제로 개신교인의 과반수 미달이라는 충격적인 보도에도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고 크리스천리티투데이는 보도했다(Dramatic Increase in Religiously Unaffiliated Status: Why religious leaders aren't terribly troubled by the news).

퓨포럼의 이번 설문에서 같이 참여한 PBS의 '종교와윤리뉴스' 편집장 킴 로튼은 "이러한 수치들은 미국에서 종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아니다"고 말한다. 크리스천들은 이번 설문에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만 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네티컷대학교 브래들리 라이트 사회학교수는 기독교인의 감소는 상징적으로만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51%나 48%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1세기 전 미국 인구의 48%가 주류교단이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교단을 제외한 다른 기독교인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됐던 교인들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비하고 있었던 주류교단 입장에서는 이미 대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조직돼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과 실제로 대안교회를 통해 사역을 하고 있기에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이자 복음주의루터교단 목회자인 더그 스웨니 교수는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당장은 무종교인처럼 행동하지만 자녀를 갖게 되면 그들이 자라왔던 환경 즉 신앙공동체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에서 조직신학과 변증학을 가르치는 호튼 교수 역시 "무종교인"이란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단지 예배하는 교회공동체를 떠났을 뿐이지, 이들에게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설문에서 드러난 "무종교인"은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들처럼 전적으로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종교인"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 특정 교회나 교단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68%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응답하고 있고, 이들 중 20%는 매일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미디어는 단순히 숫자상의 감소를 부풀려서 보도한다. 미국을 각국으로 비교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한 보도이다. "아니 미국이 더 이상 개신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은 그리고 이번 설문 조사를 발표한 퓨포럼 리서치 역시 발견된 수치와 추세를 통해 교회공동체의 대응을 준비하게 된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젊은 세대들의 종교성은 "영적이거나 종교적이지는 않다(Spiritual but Not Religious)"는 것.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들을 토대로 교회공동체는 영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면서 교회로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10년 정도부터 예견돼 온 기독교인 감소는 일반인들에게는 충격일지 몰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주류교단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이를 피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기에 향후 10년 안에 또 다시 기독교인 숫자는 증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오순절이나 카리스마틱 교회의 도움까지 더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디든지 따르라" ...

(2면에서 계속)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만' 따르지는 않았기에 제자가 되지 못했다.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무수한 자들에게 예수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퀴즈대회에서 1등하는 영예와는 다르다. 그 삶에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다. 아이들만 목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크리스천 독자들을 향해 제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예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르라고 강조한다.

(1면에서 계속)

새롭게 들어온 초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 후에도 기존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 초신자를 양육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사실 초신자를 잘 양육하는 소그룹은 초신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애정과 정성을 쏟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적 장벽을 느끼는 초신자들에게는 집에 초청해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함께 극장에 가거나 야외 소풍을 다니는 등의 이벤트까지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리더와 기존 구성원들이 협력해 초신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울 때 초신자들의 정착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새소망 칼럼

사명자로 새로 태어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 곳에서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나 죽음이나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행20:22, 24). 사람의 목숨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또 명예나 권세를 준다 해도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인간은 세 번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첫째는 생명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며, 둘째는 정신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즉 올바른 판단력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본능의 충동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며 셋째는 사명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즉 책임있는 인생으로서 무엇인가 숭고한 자기 임무를 깨닫고 그 임무 수행을 위해 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인생을 송두리째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명감이 투철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사명(使命)이라는 사(使)자는 심부름 할 사자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을 주의 사자(使者)라 했다. 인간 사회에서도 작은 심부름꾼은 소사(小使)라 하고 큰 심부름꾼은 대사(大使)라고 한다. 대사는 자국의 국가원수로부터 다른 나라의 원수에게 파견되어 주재국에 대하여 자국의 국가의사를 표시하는 임무를 가지며, 자국의 국가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사를 전권대사(全權大使) 혹은 특별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라고 부른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 받고 특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사도(使徒)라 부른다. 사명이란 명(命)자는 목숨 명자로서 곧 중대한 심부름을 하는 자는 목숨을 걸고 그 심부름을 해야 한다는 뜻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심부름의 명을 받고 태어난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명감이다.

교회의 일 말은 직분자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심부름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교회의 사명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해 각자 중요한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명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로부터 교회를 위하여 받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목숨을 걸어야겠다. 요즘 교회에서 "목걸이 운동"이라는 것이 실행되고 있다. 교인들의 교회에 부흥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운동이 목걸이 운동이다. 우리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 목걸이 운동 목사, 목걸이 운동 장로, 목걸이 운동 권사, 목걸이 운동 교인되기를 바란다. 사명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길은 오직 헌신이다. 헌신은 자기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몸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마음과 힘을 다 쏟아 붓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교회나 사회 각계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모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역사의 대업(大業)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예술의 거작(巨作)이나 학문의 훌륭한 업적을 보면 모두 헌신의 산물이요 헌신의 결과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려면 받은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용기와 헌신의 젊은 대통령 J.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네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당신은 용감했습니까? 둘째 당신은 총명했습니까? 셋째 당신은 성실했습니까? 넷째 당신은 헌신했습니까?" 헌신은 인간 최고의 덕이요 가치이다. 나는 케네디가 한 이 말을 늘 기억하며 내가 섬기는 교회역사에 아름다운 헌신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명자의 길을 걷고 싶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사명자로 새로 태어나 참된 헌신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한국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교 수: Dr. Tom Stallter
장 소: 경남 하동제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A Session(Jan 7-Mar 3: 1월 7일-3월 2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PM 803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 A Session(Jan 7-Mar 3: 1월 7일-3월 2일)**
MIN501 Theological Seminar 1(신학개론 1)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MIN 531 Ministry & Cultural Diversity(목회와 문화의 다양성)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당신을 업그레이드 하라

몇 년 전 일본에 '사토라레'라는 영화가 상영됐다. 그 영화에는 사토라레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사토라레는 어린 시절 비행기 사고를 당해 사고 잔해더미에 깔렸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의 귀에 어디선가 '엄마,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이 분명하게 들려온다. 그 소리는 사토라레가 잔해더미 속에서 단지 마

음속으로 소리친 것인데 그 생각이 구조대원들의 귀에 분명한 소리로 들린 것이다. 이것을 귀하게 여긴 일본 군사기관에서 사토라레를 특별 관리하여 양육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토라레는 그가 품은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귀에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어서 언제나 자기 생각을 들으며 사는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성장해서 의사가 된 사토라레는 많은 환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특히 환자들을 향한 긍휼과 애정이 날날이 다 들켜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에 품은 생각을 숨길 수 없는 사토라레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도 중요하다. 게다가 사람은 자기가 품은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반복되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컴퓨터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서 사용해도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오는 바람에 내 것은 구시대의 것이 된다. 참으로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이다. 그런데 좀처럼 업그레이드(upgrade)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사람들이

다.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 변화의 물결이 정작 자신에게 밀려올 때는 마음 문을 닫아둔 채 구태의연한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옛날 그대라라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운명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더더욱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인생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는 것이다. 빵이 빵 틀로는 잉어 빵을 찍어낼 수가 없다. 빵틀을 바꾸어야 한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중단하고 긍정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안 된다. 할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가 어느 날 친구의 배신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다시피 하였다. 이 사

업가는 절망에 빠져 매일같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데에 대한 탄식과 원망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 친구를 복수할 생각만 했다. 그때 그 교회 놀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심방을 하였다. 찾아오신 목사님에게 그 부부는 자기들은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아주 절망적으로 탄식을 하며 말씀을 드렸다.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빈센트 목사는 연필과 종이를 좀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자녀가 모두 몇몇입니까? 잘 지내나요?" "팔 둘 아들 둘이고 잘 사는 편입니다." "두 분께서 친구들에게 신용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친구들은 없습니까?" "왜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 "그럼 두 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비록 사업은 망했지만 건강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니다." "두 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다 적은 종이를 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에 아무것도 없이 전부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요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4남매나 있고, 돈보다 더 귀한 신용도 있고, 좋은 친구가 있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시민권도 갖고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부는 과연 그 목사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실업가는 그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어 긍정적으로 가능성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 바뀐 생각의 틀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놀랍게 크게 성공하였다

인생의 업그레이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언제나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긍정적인 틀로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 생각의 틀을 긍정적인 생각의 틀로 바꾸어주셔서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푸/른/초/장

이규본 목사
(주비전교회)



오래된 영화 '빠빠옹'은 가슴에 나비문신을 한 주인공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점점 죄가 무거워져 나중에는 도저히 살아가 수 없는 아프리카의 어느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늙은 나이인데도 절벽에서 아자나무 열매를 묶어 뗏목을 만들어 던진 후 바다에 뛰어 들어 탈출에 성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는 나가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고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착한 일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감옥에서 나가면 그런 생각은 너무도 빨리 없어지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위해 또 죄 짓고 살게 되는 것 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정작 자유를 얻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1. 죄의 종과 의의 종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 둘 중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인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하에,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19절)하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이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여기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룩하여지는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점점 성결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어

는 사실이 죄를 범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3. 의의 종이 맺는 열매

죄의 종이 된 삶의 마지막 열매는 사망입니다(21절). 이것은 미래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 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된 자는 죄의 종이 된 자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19절 마지막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러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였습니다. 또 22절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를 짓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게 됩니까? 이것은 죄의 종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주고 싶고, 나도 모르게 용서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어합니까? 싸우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 해주고 기도 해주게 됩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가 의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갈6:8).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여기서 삯은 마땅히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삯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함을 살의 목표로 삼고 철저히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삶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인가?(Whoes slave are you?) 로마서 6:15-23

하나,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실체적인 '의'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는 명목상의 '의'입니다.

의의 종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의의 종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아무 간격이 없습니다. 믿으면 즉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종이 되었으면 실제적인 의를 얻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제

'의의 종'이 된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2. 당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이던 자들이 예수를 믿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

편 사람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종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옛사람, 즉 죄의 종의 운명과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할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아래 있다

의의 종이 된 자는 주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은혜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의 의의 종이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종이 얻는 영생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전혀 새롭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여 봅시다. 내가 아직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까? 부득이 죄

기도시간을 **확실히** 하라 기도응답을 **확실히** 하라 기도범위를 **확대** 하라

10월 미주 갈멜산기도원 정기기도성회

| 일시 : 2012년 10월 18일(목, 저녁) ~ 25일(목, 저녁) (매일 오후 7:30, 오전 10: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감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교서기도원(전)장-장로-LA담당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BBT대표/KNMA 운영이사
총산대학부(TH,LA/THLD,com)미국 (CRUSD,Min)

1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권국의 언양에 위치한 갈멜산교서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된 기도원으로 심도로운 영적 성장을 위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님을 제외한 대립 어떤 것에도 대립 기도회로 대립 조성근 담임목사에게 직접 설교를 인도하는 대립 정기기도회였습니다. 신미주의를 격음주의를 펼쳐서 행하여는 코복침과 감음침의 기도성회에는 생명이 있는 담임목사에게 넘겨지는 권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회 환경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빛의 헌양이 앞장서고 직분자들은 권고하고 성숙한 헌양을 지니게 하여 사직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앞의 기도는 새로운 헌양이여 빛의 감격이 됩니다. 저들도 기도할 때만 단란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주라도 기도하면 이주부터는 담라합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LA. MIJU GALMELSAN PRAYER CENTER

| 담임목사 | 조성근
| 부목사 | 황건영 | 전도사 | 김성희

Tel: (818) 306-4912

www.galmelsan.or.kr

교육칼럼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7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다음세대(자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미 교육과 문화 그리고 예배체함과 훈련을 통한 제자양육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제 그 Solution(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교육은 결코 간단히 몇 페이지 글로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많은 미국교회들이 수백 년 동안 교단별로 경영해 온 기독교학교 교육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과 운영 면에서의 현실성을 먼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실질적인 검토에 앞서 기독교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철학이 먼저 분명히 세워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갈수록 기독교의 교세가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 그리고 세계 선교를 주도해 온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이 이제는 기독교인의 수가 미국인의 절반이 못되는 48% 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로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48%의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지 실제로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는 통계의 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이가 많은 고령 신자들이 아직은 살아 있어 교회의 명맥을 지탱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아주 더 심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학교설립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저는 기존 기독교학교를 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들이 실패한 기독교학교들을 인수하여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요, 한국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교회 시설들을 주일예배와 주일학교로만 사용하지 말고 주중 동안 비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학교를 세워 우리 다음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아주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홀히 해서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은 결코 보편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기독교 교육은 누구나 교육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어느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다음세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수들에게 영재교육을 시켜 그들로 국가 사회 정치 경제 등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학교 3학년 때 만난 주일학교 음악선생님 때문에 음악을 하게 되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시간(50분) 수업 국사시간에 만난 국사 선생님 때문에 저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인격적으로 큰 영향과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간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의 이야기는 학교사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이 모두 중요하며 함께 연결한다면 더욱 교육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토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인교회로서 학교사역을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서 북한에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북한의 어린이들은 김일성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이 투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교육의 힘에서 온 것인데 그 교육방법은 세뇌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교육도 학교를 세워 세뇌교육을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의 효과는 공산주의 같은 체제가 뒷받침이 되는 나라나 문화적 환경이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난하

기독교학교는 소수 영재교육 아닌 보편적 기독교교육 실시 예수님 체험하고 인격 닦아 가는 고도의 커리큘럼 개발해야

미국인 30세 이하의 기독교인의 통계는 겨우 4%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미국교회들 마다 주일학교 존재 위기를 지나쳐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단별로 수많은 미국교회들이 설립하여 경영해오던 기독교학교(Preschool,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등)들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교한 학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학비와 학교운영이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경영해야 하는데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공립학교로 옮겨오는 학생들이 많고 근본적으로는 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산아제한을 함으로 인해 히스패닉을 제외하고는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거나 한 두 자녀밖에 갖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을 기독교학교로 입학시킨다는 것은 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운다고 다음세대 교육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와 준비가 없이 학교를 세워 미국 교회들이 이미 경험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리고 교회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루터교(Lutheran) 교단이 다음세대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학교사역(Schooling)에 가장 집중해왔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단은 주일학교 커리큘럼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어느 교단보다도 학교사역과 주일학교 교육에 연구와 경험이 많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 저는 기독교학교 교육만이 다음 세대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는 주일 하루 그것도 겨우 한 시간 정도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학교생활을 통해 기독교교육과 훈련을 병행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 리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미국이 백 년이 넘게 오랫동안 추구해 온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소수의 리더를 키워 추종자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려고 한다면 교육이념에 위배되는 특히 기독교교육의 본질을 이탈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정할 때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만을 골라 뽑지도 않았습니다. 직업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했고 오히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독교교육에서 보편성을 배제한다면 그런 교육은 진정한 기독교교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주일학교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오전 단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한 시간이 정말

고 미개한 나라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방된 환경에서 많은 선택이 있는 자유 분방한 아이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다 더 발전된 방법(Method)을 투입해야 하며 아이들 스스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격을 닦아 갈 수 있는 고도의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교육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교육의 실패 원인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세대의 문제 결코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는 긴급한 문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계가 뜻을 모아야 하며 다음세대 교육(Schooling, 주일학교교육)과 문화 그리고 예배체함과 훈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 해결책을 공급해야 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는 말도 많고 시험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도 힘들어 하고 목회자도 힘들어 합니다. 저는 최근에 토론크스의 어느 장로교회에서 시무장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중간에서 서서 교회가 은혜롭고 화목하고 부흥되게 도울 수 있을까요?
-토론크스에서 한 장로

A: 저 역시 한인 이민교회를 30년간 목회하면서 개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느낀 바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의 직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해 자신의 영적성숙과 개발을 힘써십시오. 장로교회의 장로는 당회에서 목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를 함께 의논하는 당회원입니다. 장로교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는 당회에서 다룹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되어 당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식견과 영적 지혜와 통솔력이 있어야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신령한 것이기에 늘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도 안되고 믿음이나 말이나 생각에 있어서 성숙하도록 자기 발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직책을 맡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게 되면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 결국은 목사와 충돌하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기 쉽습니다.

담임목사의 동역자로 영적성숙과 개발에 힘써야

둘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를 잘하시도록 돕고 협력하며 섬기십시오.

그래서 담임목사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목사와 성도간의 중간에서 서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먼저 장로님이 목사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십시오. 성도들은 장로님의 모습을 따라갈 것입니다. 담임목회자가 비 성경적이거나 도덕성의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일단은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6: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목회자와 모든 면에 좋은 것을 나누시고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십시오. 목회자를 이해하려고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풍토를 만들면 교회는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드러내지 말고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말씀을 받아먹는 양으로서 말씀전하는 목사님을 진정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도 자신감과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목회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대사위(大事爲) 소사(小事)하고 소사위(小事爲) 무사(無事)"하십시오.

이것은 어느 장로님이 장로로 장임을 받을 때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없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하게 되면 말도 많고 시험도 많게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비판을 바로잡고 나쁜 소문을 잡식시키십시오. 평화의 사도가 되고 목회자를 세우십시오. 생각을 크게 하고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페칼(PEKAL)



인도네시아의 페칼은 수마트라의 경사 산지지역과 남서쪽 연안에 위치한 말레이 사람들이다. 인도네시아의 주된 섬들 중에 하나인 수마트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섬이다. 페칼은 북쪽

벵쿠루(Bengkulu)지역의 남쪽 모코모코(Moko-Moko)지역에 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테라망(Teramang) 강 유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은 남동쪽의 바리산(Barisan) 산맥과 남서쪽의 인도양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때때로 페칼의 다양한 종족이 좀더 가능한 케타후(Ketahun) 지역의 남쪽으로 확산해 있고 넓게는 케타후(Ketahun)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새롭게 갈려진 트란-수마트라(Trans-Sumatra) 고속도로는 서쪽 섬의 연안을 따라 연계돼있

고, 벵쿠루(Bengkulu) 시에서 파당과 남쪽 수마트라와 연결돼 있다. 페칼 지역을 여행하면 고속도로가 남쪽 모코모코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이푸(Ipuh)의 심장을 가로질러 있다.

삶의 모습
페칼인의 주된 직업은 우기에는 농부, 건기동안은 어부로 일한다. 그들의 일은 전통적인 수공품과 도구에 의해 사용한다. 주된 생산품은 커피와 쌀과 초콜렛과 담배, 감자, 향신료, 땅콩,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한다. 바깥지역 판매원들은 매주 정해진 날에 그들의 제품을 가지고 온다.

많은 페칼 남성들은 정부고용인, 선생, 건축업자, 군대, 기술 있는 노동자들, 광주리 짜는 사람들, 벽돌

생산자들, 소몰이들, 그리고 상인들로서 고용되어진다. 페칼의 여성들은 농사일을 하며, 고기와 새우를 말리는 일도 한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25%가 안된다.

페칼의 집은 전통적 말레이 스타일에 죽마를 올려 세웠다. 옹호와 상호교환을 위해서 마을들은 다양한 카움(Kaums) 또는 종족 그룹으로 조직돼 있다. 만약 타인이 페칼에서 살기 원하면 그들이 살 곳의 사람들을 위한 카움 뿐만 아니라 다른 카움의 사람들을 위해 닭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 후 그들은 지역 시민으로서 공적으로 인정받고, 페칼은 그들의 종교적, 인종적, 교육적, 경제적 상태에 불구하고 공평하게 다룬다. 단 이 사람은 반드시 카움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야 하며 페칼의 구성인으로서 그의 담당해야

할 부분을 해야 한다.
언어는 말레이어를 사용하며 시골지역에서의 모임에서 지도자들은 페칼어를 사용한다. 결혼식에서도 지역적 모임들과 문화적 모임에서 만일 페칼이 인도네시아 말을 쓰지 않는다면 그들의 언어를 쓰는 것을 선호한다.

신앙
페칼의 100%가 무슬림이다. 그들은 경건하고 영적인 장소들과 도구들과 관계된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경멸한다. 그들은 결혼과 환경, 경작, 수확과 관련된 전통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친척들과 이웃들을 위해 물질적인 필요와 헌신적인 일꾼을 제공한다.

페칼은 비를 부르고 악령을 쫓고 부도덕한 것이 행해진 곳을 깨끗

하게 하기 위해 무슬림 의식들을 행사한다. 그들은 부족한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며 자연적 재해피해를 위해 돕는다. 그리고 모스크를 세우기 위해 경제적으로 돕는다. 그들은 마을의 필요를 돕거나 예배 참석에 매우 헌신적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페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이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적 자원들이 전혀 없다. 진리를 듣지 못하면 그들은 이슬람의 영적 노예로 남아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페칼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 많은 기독교인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롬니, 그레이엄 목사 방문 지지받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밋 롬니가 11일 미국인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평가받는 빌리 그레이엄(93) 목사를 방문했다. 지난 8월 7일 관저에서 이틀간 병원에 입원했던 보수 성향 복음주의의 대부격인 그레이엄 목사를 만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몬트리트에 있는 그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간 것은 하루 25시간도 부족한 대통령 후보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레이엄 목사는 이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전 세계 오지에서의 구호 활동과 종교 자유, 교회 성장사 등을 언급하며 롬니 후보와 30분간 대화를 이어갔다. 롬니 후보는 이미 고인이 된 선전을 회고하면서 "아버지가 88세였던 어느 날 리빙머신에서 조깅을 했는데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쓰러졌고, 당시 곁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결국 운명하셨다"면서 "어머니는 그 1년 더 사시다가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레이엄 목사는 미시간 주지사서 지낸 롬니 후보의 부친 조지에 대해 언급을 했고, 조지를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롬니 후보에게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고, 롬니는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한) 기도"라고 답했다. 기도가 끝나고 그레이엄 목사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용해도 좋다"고 언급, 사실상 롬니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바쁘다 바쁜 시점에 롬니 후보가 일부러 틈을 내 그레이엄 목사를 만난 것은 단순히 그의 건강을 묻기 위한 목적만은 아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경합주(스윙 스테이트)의 판세가 극히 중요한 상황에서 그레이엄의 '지지' 선언을 얻어내 경합주들 중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의 표심을 확실히 붙잡아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롬니 후보가 모르몬교도여서 보수 정통파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미전역의 보수표를 끌어 모으려는 이른바 '집토끼 단속'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욱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동성결혼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다.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큰 의견차를 보이는 주제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미 공관 피습사건 조사 예멘관리 피살

예멘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예멘의 보안 관리가 11일(현지시간) 운전 도중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예멘 정부와 미국 대사관의 치안 조정자 역할을 해 온 카심 아클란은 이날 오전 수도 사나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아클란은 사나의 주요 도로인 싯틴에서 운전 중 오도바이를 타고 옆을 지나가던 괴한이 손 총탄에 맞았다. 예멘 내부무부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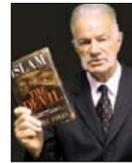
아클란은 지난달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의 여파로 예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공격당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미국 관리의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예멘 보안 당국은 알카에다 조직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미국인 1명을 체포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예멘 보안 관리는 한때 알카에다 근거지였던 남부 도시 사브와와 한 호텔에서 미국과 독일 여권을 소지한 한 남성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예멘 당국으로부터 이 남성의 국적과 신원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코란 소각 존스 목사 입국 거부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11일 이슬람 경건인 코란을 소각해 세계적 물의를 빚었던 미국 테리 존스 목사의 캐나다 입국을 거부했다. 존스 목사는 온타리오 주 토론토의 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반테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정오께 국경도시 윈저의 앰배서더 다리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려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CBC방송이 보도했다.



존스 목사는 입국 심사대에서 즉각 2차 심사 조치를 받고 수 시간 동안 자동차 검색과 심층 심문을 거친 끝에 발길을 돌렸다고 이 방송은 말했다. 그는 캐나다 관리로부터 "증오 연설"에 관한 "정중함" 질문을 받았으며 "내가 참석할 집회와 연설이 문제였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경 당국은 "캐나다 입국 여부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이 우리 수칙"이라며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입국 여부 결정을 위해 인권위반, 조직 범죄 및 범죄 경력, 안보, 위생 문제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존스 목사는 지난해 3월 공개적으로 코란을 소각해 이슬람권의 반미 시위를 유발했으며, 최근 이슬람 모독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을 적극 홍보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성경대로.." 아들 죽인 맹신교인 유죄

8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기독교 맹신자의 살인 사건 재판이 중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15일 WSB 방송 등 애틀랜타 지역 언론에 따르면 디캡 카운티 법원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벤저민 에더턴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에더턴은 지난 2004년 성경을 과도하게 해석한 나머지 태어난 지 다섯 달 된 셋째 아들에게 심한 때질을 가해 목숨을 빼앗았다. 피해자는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으며, 당시 둔기로 맞아 온몸에 피멍이 들고 두개골과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살 된 딸과 한 살 된 아들도 아버지의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구타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정당 가해의 근거로 삼은 성경 구절은 '매를 아

끼는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별로 다스린다는 잠언 13장 24절이다. 그는 "성경 말씀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시켰을 뿐"이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고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가면서 취재진과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짓는 등 끝까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법원은 살인 혐의를 기각하고 과실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 출옥 후 피고인이 두 자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남편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저지하지 않은 아내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토 중이다.

미얀마 승려 수천명 OIC 반대시위 벌여

15일 미얀마에서 이슬람 협력기구(OIC)의 국내 활동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OIC의 국내 사무실 개선을 금지할 것이라고 한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미얀마 대통령궁의 한 관계자는 "테인 세인 대통령이 OIC의 국내 사무실 설치에 국민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OIC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OIC는 미얀마 내에 사무실을 설치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다고 지난주 밝힌 바 있다. 이날 미얀마의 최대상업도시인 양곤과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달레이 등지에서 승려 수천명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OIC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도우려 한다며 정부에 57명의 OIC 위원이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불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에서는 불교도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간에 유혈충돌이 발생,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OIC는 해당 사태와 관련해 로힝야족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를 설득해왔으며, 지난달에는 57명의 위원이 라카인 주를 순방한 바 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얀마 주민 대부분도 이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담임 목사 청빙

덴버 한인 장로 교회에서는 양 무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1세와 2세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며 뚜렷한 신앙 비전과 겸손으로 목양하실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혹은, 본 교단 가입 가능) 목사
2. 정규 목사 안수를 받고 3년 이상 단독 목회 경험이나 부목사 경험이있는 분.
3.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분
4.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로서 35세 ~ 50세 초반

제출 서류

1. 본인과 사모 소개서(최근 가족 사진 첨부)
2. 신앙 간증문과 사역 비전 및 계획서
3. 최근 셀프(6개월 내) 동영상(web address) 이나 CD 2회본
4. 목사 추천서(2인 이상)
5. 학위 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및 안수 증명서

참고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제출처

우편 혹은 e-mail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Denver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 교회: (303)422-8950 | info@kpcod.org
덴버 한인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 위원장: 최병욱 장로 (303)422-8777

제출 기한

2012년 10월 31일(당일 도착분에 한함)

담임목사 청빙

세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는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선교하는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M. Div) 이민교회 5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2.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한자.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자(우선)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2. 신앙고백, 목회와 선교에 대한 소신서
3. 학력증명서사본
4. 목사 안수증서 사본
5. 추천서 2통(추천인이 직접보냄)
6. 설교 2편 (CD 나 음성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

보낼곳

이메일: sangwoo@sbcglobal.net
담당자: 담회시기 수상목 장모
서류접수 마감일: 2012년 10월 30일

참고 사항

1. 모든 서류와 문의는 이메일로 만 바랍니다.
2. 모든 제출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보내 주십시오.
3.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서류심사후 청빙후보가 되신 목사님께서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교회전반에 관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후에 영상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교회 웹사이트: www.arkmissionchurch.org

세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

임시 담회장 임동하 목사
Ark Mission Church, P.C.A

미주크리스천신문
46쪽의 목회자를 위한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KAPC 뉴욕노회 수양회



KAPC 뉴욕노회 수양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뉴욕노회(노회장 조문선 목사)가 주최하는 수양회가 지난 15일 정오부터 16일 정오까지 펜실베이니아 포코노에 위치한 하워드존스에서 열렸다.

노회 임원과 교육부 주관으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영과 육신의 안식과 함께 친목도모를 위해 부부동반으로 모인 이번 수양회 강사는 장영준 목사, 김남수 목사, 한종희 목사가 초청됐다. 또 이선희 보혈설계사가 목회자들에게 특강하는 시간도 가졌다.

저녁예배에서 장영준 목사는 “예수 생활에서 나타난 겸손”(눅 22:27, 요8:2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사제공: KAPC 뉴욕노회)

헤브론교회 'Compassion Sunday'

엘살바도르 아동 140명 후원결의

헤브론교회(담임 김건우 목사)가 지난달 30일 '컴패션 선데이'(Compassion Sunday) 행사를 갖고 엘살바도르 아동 140명을 후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Compassion 한국대표 서정인 목사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Compassion 미주대표 문영명 목사가 유스와 EM 연합예배를 인도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엘살바도르의 아이들을 돕도록 강력하게 도전했다.

결연에 앞서 김건우 목사는 “이번 행사가 단지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역이 될 것”이라며 “많은 후보국가 중에서 미국에서 비교적 가까운 엘살바도르를 정해서 지속적인 후원 편지와 단기선교여행

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 하는데 헤브론교회가 작은 부분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컴패션은 1952년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스완슨 목사(Rev. Everett Swanson)에 의해서 한국전쟁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그 후 41년 동안 10만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들을 후원해 오다가 2003년부터 한국은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이번 헤브론교회에서 개최된 컴패션 선데이는 컴패션이 시작된 시카고에서 60년 만에 다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현재 컴패션은 26개국의 130만명 이상의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다. (정리: 유원경 기자)

KCCD 주택구입 박람회 연다

첫 주택구입 및 차압 등 실패자들을 위한 기회제공

KCCD(회장 임혜빈)은 제11회 KCCD 주택구입 박람회를 오는 20일(토) 오전 9시부터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택구입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해 많은 한인들이 주택 마련의 기쁨을 선사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KCCD주최로 열리는 제11회 주택구입박람회에 대하여 임혜빈 회장이 설명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택용자 승인을 위한 3가지 기초 △최고 65,000달러까지 가능한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 △사립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신용의 3가지 △경매 처분 되기 전의 주택 싸게 사는 방법 △E-trade가 선보이는 4대 1 매칭 프로그램: E-Trade에서 100달러 세이빙(saving)마다 25달러 매치 등 프로그램이 소개되며 신착순 100명에 한해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가 증정되며, 각종 경품 행사 등이 마련된다.

▲예약 및 등록 문의는 (213)985-1500, www.kccd.org (박준호 기자)



뉴욕청소년을 위한 감사와 후원의 밤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청소년을 위한 감사와 후원의 밤

뉴욕청소년센터 사역보고와 비전 발표

지난 15일 저녁 뉴욕교협 청소년센터(AYC)가 개최한 '뉴욕청소년을 위한 감사와 후원의 밤'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과 청소년센터 후원자들이 새 건물이전 계획 등 새물결을 비교하는 청소년센터를 도울 것을 다짐했다.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후원의 밤은 1부 예배, 사역소개, 2부 축사와 격려사, 간증, 뉴욕청소년 현재 상황 등이 발표되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예배는 스티브랑 목사(뉴욕수정교회)의 사회로 뉴욕수정교회 찬양팀의 찬양, 최예식 대표사신의 인사, 대표기도 양희철 목사, 설교 양승호 뉴욕교협회장, 축도 김경숙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청소년센터 사역소개 및 DIM 공연 후 열린 2부순서는 이수일 이사장의 사회로 축사 이항용 미주한인청소년재단회장, 격려사 김중훈 뉴욕교협

부회장과 김승희 뉴욕목사회장, 부모교실 간증, 학원사역 간증, 뉴욕 청소년들의 현재 상황보고 김현돈 사무총장, 광고 및 합심기도 장영혜 회계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청소년센터는 사역소개를 통해 뉴욕청소년 사역자 네트워크, 상담, 학원사역 등 3가지 방향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뉴욕청소년 사역자 네트워크의 주요사역인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청소년농구대회, 청소년사역자컨퍼런스를 맡아 사역을 크게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 플러스, 베이사이드, 롱아일랜드에서 학원사역을 시작했다. 2013년에는 브루클린과 스테이튼아일랜드, 2014년에는 맨해튼과 브롱스로 점차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무총장 김현돈 목사는 10년의 비전을 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원경 기자)

NJUCA후원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지성, 감성, 영성이 균형 잡힌 전인격적인 크리스천 인재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뉴저지유나이티드크리스천아카데미(NJUCA, 설립자 신정하 장로)고등학교 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크립 릿지 골프장에서 2012년도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첫 서리가 내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성남 뉴저지연합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한 한인사외와 James Waskovich 전 교육감 외 지역 미국인사 등 61명이 참석해 기독교 리더 육성을 위한 뜨거운 사랑

을 모아 15,000달러의 장학기금을 성원했다.

뉴저지 중부에 위치한 기독교 사립 고등학교인 NJUCA는 한국과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미국 로컬 학생 등 100여 명이 기독교 믿음에 기초한 학문수양에 정진하고 있다. 2004년 개교 이래로 NJUCA를 후원해 온 Friends of NJUCA(후원회)는 다양한 장학기금마련 행사를 통해 매년 5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아 베테랑스태이 재학생들에게 전달 해오고 있다. (기사제공: NJUCA)

베데스다대학교 재학생 동문 체육대회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진유철 목사)는 지난 12일 2012 체육대회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랍골 B 클럽 리즈빌 파크에서 개최했다.

가을의 맑은 하늘아래에서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본교 재학생과 동문들이 블루 팀과 레드 팀으로 나눠 축구, 발야구, 배구, 피구, 줄넘기, 릴레이 등 종목과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단합과 동문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었다. (박준호 기자)

특히 동문회에서 이날 행사를 위해 태블릿PC 등을 도네이션 하는 등 훈훈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APU한인동문회, 존하틀리 박사 초청 특강

30일 한인석사과정프로그램 주최 설교세미나 개최

아주사피서픽대학교 한인동문회(APU 회장 최장식 목사)주최 존하틀리 박사(APU 구약학 특임교수) 초청 특강이 11일 오후 6시30분 본교 이스트캠퍼스 윌드 홀에서 열렸다.

박성민 박사(APU 부총장)의 강사소개로 시작된 이날 특강에서 존하틀리 박사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성은 바로 거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룩은 이 지구상의 생명의 근원이다. 거룩은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한다. 사랑은 거룩의 내용이며 거룩은 사랑을 정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은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33년 만에 구속했다. 창조의 끝에 하나님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구속은 거룩한 하나님이가 창조한 것을 주목하는 것을 증명한다. 인간은 하나님께 거역했으나 거룩한 분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강의를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존 하틀리 박사의 기도도 이날 특강을 마쳤다.

한편 본교 신학교 한인석사과정 프로그램(디렉터 변명혜 박사)은 오는 10월 3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타운 내 가든스위 호텔서 목회자설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대상은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및 신학생들이다. 강사는 김진호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 노한준 목사(한교회), 한규삼 목사(뉴저지초대교회),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등으로 모두 코스타 강사로 활동 중인 목회자로 설교에 대한 알찬 강의를 인도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노진준 목사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김한요 목사가 ‘설교 역동적 복음의 선포’, 한규삼 목사가 ‘에베소서 강해 설교 연습’, 그리고 강준민 목사가 ‘인물별 강해설교의 준비와 전달’ 등을 강의하게 된다.

APU는 세미나가 마친 후 참석자 목회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갖게 될 것이며 매년 리더십, 영성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의 등록비는 30달러(점심식사 포함).

▲세미나 관련 문의: (626)857-2200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계현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7797, Fax: (02)323-823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7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2)1123-2794-5 군포시 광명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394-8900-5, Fax: (02)394-8900-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40-1131-211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경기도 김포시 서곶동 20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02)2123-0416, Fax: (02)2123-0416 서울 영등포구 영등동 530-115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3208-0401-5, Fax: (02)3208-0401-6 2-10-9 Guro Station, Guro,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전 11:00,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02)3277-8989-5, Fax: (02)3277-8989-6 (97400-63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안동 18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지역예배: 오후 8:00(매일)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VIA DEI GIORNATI 32-30 GIORNATI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4:30 지역예배: 매일 4시 Tel: (02)71-640-9000, Fax: (02)71-640-9000 서울시 강동구 목동동 330-4 (334-02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Tel: (02)945-8900-5, Fax: (02)945-8900-6 서울시 강남구 목동동 872-3 (158-027)	새연교회 담임목사: 소강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일요일을 위한 전례예배) Tel: (02)398-0900-0900, Fax: (02)398-0900-09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00 주일4부예배: 오전 6:30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530-115번지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병국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530-115번지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 주일5부예배: 오전 7:30 주일6부예배: 오전 8:30 지역예배: 오전 8:30 (매일 새벽 4시)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530-115번지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부산광역시 서구 대저동 1439-4 (312-0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71-640-9000, Fax: (02)71-640-9000 서울시 서구 용인동 330-4 (334-02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732-7341-1, Fax: (02)732-734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40-1131-2111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매일) Tel: (02)398-0900-0900, Fax: (02)398-0900-09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23-1019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서울 영등포구 영등동 530-115번지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경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30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서울 영등포구 영등동 530-115번지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주일7부예배: 오후 9: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40-1131-2111	안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10:30(매일) 주일6부예배: 오후 12:30(매일) 주일7부예배: 오후 5:00(매일) Tel: (02)323-7797, Fax: (02)323-7797 (041-20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530-115번지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71-640-9000, Fax: (02)71-640-90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40-1131-2111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30 Tel: (02)945-8900-5, Fax: (02)945-8900-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40-1131-2111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동 298-10(039-038)	장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530-115번지	정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서울 영등포구 영등동 530-115번지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연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1:00 Tel: (02)31-0229-0416, Fax: (02)31-0229-041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40-1131-2111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중부교회 건축기금 바자회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건축기금 바자회가 11월 9일(금)과 10일(토) 이틀간 동 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2757

제 7회 뉴욕크리스천 영상페스티벌

제 7회 뉴욕크리스천 영상페스티벌이 12월 8일(토) 오후 6시 뉴욕 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동 교회 청년부가 주최하는 이 페스티벌은 뉴욕 뉴저지 지역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이 영상제는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시작됐다.
http://www.nypcian.org/cnb/movie_festival에 가면 그동안 제출했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NYPC.FILMFESTIVAL@GMAIL.COM

뉴비전청소년센터 후원의 밤

뉴비전청소년센터(대표 채왕기 목사) 후원의 밤이 오는 23일(화) 저녁 7시 라이라이(1144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에서 열린다. 강사는 허준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찬양강사 전용대 목사(CCM가수), 뉴비전 스태프 강증 및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이 출연한다.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은 23일부터 28일까지 순회 집회를 하게 된다.
▲문의: (215)782-3789

제4회 바다 워십 페스티벌

뉴욕한인청소년센터(Korean Youth Center of New York, 디렉터 최지호 목사)가 주최하는 제4회 바다워십 페스티벌(Body Worship Festival)이 11월 24일(토) 오후 5시30분부터 뉴욕총신교회(담임 김해택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 자격은 청소년그룹(개인 참가 불가)으로 5분이내의 Gospel Song With Dance. 참가비는 팀당 90달러이며 참가팀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전달된다.
▲문의: (718)353-1388

제5회 가정사역 컨퍼런스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5회 가정사역 컨퍼런스 자녀양육 강사훈련이 10월 27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 10월 28일(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이틀에 걸쳐 열린다. 등록비는 175달러이며, 식사, 간식, 교육자료, 그리고 자격증이 포함된다.
▲문의: (201)242-4422

제3회 아가페 열방찬양제... 11월 4일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3회 아가페 열방찬양제가 11월 4일(주) 오후 5시 동 교회에서 열린다.

뉴저지 최대 규모의 찬양제로 매년 11월 첫째주일에 열리는 열방찬양제는 불신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찬양을 통해 영혼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며 한인교회 간의 소통과 신앙의 동반자로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타민족 교회와도 교류를 통해 선교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10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금년에는 폭발적인 찬양으로 영혼을 울리는 찬양사역자 세라징을 비롯해 NYU 재즈기타 교수인 박주현 집사가 이끄는 진양밴드팀, 송실합창단, 뉴저지중부한인합창단, 어린이 찬양댄스팀 GODS IMAGE, 댄스 미션사역팀 D.I.M, 갈보리교회 워십

댄스팀, 시각장애찬양사역자 Ellen, 소프라노 이우진, 태권관양시범단, 뉴욕평화교회찬양밴드팀이 공연한다. 타민족 교회로는 AGAPE Worship Center Church, Faith Center American Church, Spanish Community Ministry Church, Sayre Wood American Church, Liberating Word Ministries Church, Metro Park Indian Church 등의 교회가 출연하게 된다.

특히 Agape Worship Center Church와 Sayre Wood American Church는 신도수가 1000명이 넘는 메가처치로 중부뉴저지 한국교회와의 교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자세한 문은 (732)213-5856(이창호 집사)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저지아가페장로교회)

뉴욕교협 마지막 임신행위 5개 안전 처리

불법광고, 원주민선교 등 다음회기에 연결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마지막 4차 임신행위가 지난 11일 뉴욕 한국인그레네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무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5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선관위 제직 수정안: 제12조 평신도부회장은 이사회 추천결의서, 이력서, 선거등록금 1천 달러 납부 등에 관한 업무세칙을 통과시켰다.
2. 사무 제직안 통과: 사무직원 임명과 보수 등에 대한 사무규정을 명시했다.
3. 기관건물 이전추진위원회 경과보고: 장식적 위원장 대신 한재홍 목사가 청소년센터 쉼터 서니사이드 건물은 92만 달러에 팔기로 하고 11월 계약하며, 뉴욕교협건물은 150만 달러에 내놨는데 테넌트가 없어서 팔리지 않은 실정이라 렌트를 주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행위는 건물매매계약 전권을 이전추진위원회에 주기로 결의하고 이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4. 5인조사위원회(1명 사임, 현재 4명) 보고 및 청원권: 경과보고를 한 박대규 목사는 김명욱 목사(사)와 최재복 장로의 진술에 따라 불법광고를 제재한 김영환 목사에게 10월 8일까지 답변을 촉구했으나 답이 없었으며 총회에서 제명처리를 줄 것을 건의했다. 조사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총회 3일전까지 김영환 목사가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면 없었던 것으로 하지는 양승호 회장의 제의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5. 원주민 선교: 뉴욕에서 활발히



뉴욕교협 4차 임신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로 했다. 5인조사위원회(1명 사임, 현재 4명) 보고 및 청원권: 경과보고를 한 박대규 목사는 김명욱 목사(사)와 최재복 장로의 진술에 따라 불법광고를 제재한 김영환 목사에게 10월 8일까지 답변을 촉구했으나 답이 없었으며 총회에서 제명처리를 줄 것을 건의했다. 조사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총회 3일전까지 김영환 목사가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면 없었던 것으로 하지는 양승호 회장의 제의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5. 원주민 선교: 뉴욕에서 활발히

김영환 목사, 뉴욕교협 회원들에 호소문 발송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제 38회기 4차 마지막 임신행위총회에서 5인조사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의 보고를 통해 오는 22일 총회에서 제명위기에 놓인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 담임)가 임신행위 다음날인 12일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김영환 목사는 이 글에서 △본인은 광고를 낸 당사자가 아니다 △5인조사위원회는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사건 당사자가 조사위원으로 포함돼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정찰을 동원한 회장과 세상법정에 가

을직여은 북미원주민선교에 대해 김수태 목사는 실무진들의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부터는 교협에서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미자립교회 후원금 전달이 있었다. 후원금은 각 교회에 1천 달러씩 7개 교회에 전달됐다.

또한 이날 3차 임신행위 이후 주요 행사였던 △할렘루아 뉴욕복음화대회 △청소년 할렘루아대회 △임시총회 △이성은 자매 구명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 등에 대해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양민석 목사의 인도로 기도 장경예 목사, 말씀 김원기 목사("하나님의 뜻을 위한 변화", 롬12:2), 통성기도, 광고 이희선 목사, 축도 이병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38회기 정부회장후보 토론회

"십자가 안에서 화합 이루겠다" "1년간 회장 보필"

뉴욕교협 제 39회기 정부회장 선거 후보 토론회가 지난 11일 4차 임신행위에 이어 열렸다. 선관위원장 김원기 목사의 기도 후에 시작된 후보 토론회에서 회장 후보 김중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와 부회장 후보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담임)가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회장후보 김중훈 목사(왼쪽)와 부회장 후보 김승희 목사.

먼저 김중훈 회장후보는 "교회회장은 명예나 인기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며 "회장은 영향력이 있는 자리지만 그 영향력은 신앙 인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기며 뉴욕교협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김중훈 목사는 "뉴욕교협은 그동안 복음적으로 잘 다져졌다. 그 전통을 잘 이어가겠다. 부회장으로 힘을 얻던 점은 없었으며 지난 1년간 잘 배우는 단계였다. 또 실행위에서 언급된 5인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지금 대답하기에 한계가 있다. 조사위가 전달할 일이다. 공개화합에 대해서는 화합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지만 근본적인 화합은 십자가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형님(김종덕 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 담임)보다 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형님만큼 아우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므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답

하고 할렘루아복음화대회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김승희 부회장 후보는 "회장님을 잘 보필하며 섬기겠다"고 간단히 말했다. 이어진 해외출타에 대한 질문에는 부회장으로서 1년 동안 조용히 지낼 것이며 목회나 해외활동 등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각각 단독으로 출마한 두 후보는 오는 22일(월) 정기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유원정 기자)

"물질, 이성, 명예를 경계하라"

뉴욕목사회 제2차 임신행위...총회 11월 19일

뉴욕목사회(회장 김승희 목사) 40회기 제 2차 임신행위가 지난 16일 뉴욕복근교회(담임 최예식 목사)에서 열렸다.

회의는 김승희 목사 사화로 개회 기도 안창의 목사, 회원점명 김홍석 목사, 사업보고 김희복 목사, 신임회원 가입절차보고 김홍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신임회원으로 김명욱, 남지현, 박영수, 박현숙, 방봉근, 장현숙, 박은희 목사 등 총 7명이 가입됐다.

한편 목사회는 11월 12일 감사를 받고 일주일 후인 총회는 19일(월) 오전 10시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총회를 갖는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최예식 목사의 인도로 기도 장경예 목사, 말

씀 박희소 목사, 광고 김희복 목사, 축도 방지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희소 목사는 "속지 말라"(약 1:14-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은퇴하고 난후 스트레스도 없고 건강하다. 일찍 은퇴하는 게 좋다"고 서두를 때, "대개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범은 욕심이다.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 도를 넘으면 탐욕이 된다. 탐욕 중 목회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돈 문제, 성적 문제, 명예욕인데 물질에 대한 자족과 성명에도 이겨내는 이성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회장 출마는 한번 떨어지면 그만 두는 게 좋다"며 "목사의 본문은 목회"라고 못 박았다.

한편 40회기 목사회는 △2월 자선음악회 개최 △3월 랭커스터 밀레니엄극장 '요나' 관람 △5월 미동부목회자연합체육대회, 김삼환 목사 초청 세미나 △6월 성지순례 후원 목회자 골프대회, 박성현 교수 초청 성지순례 세미나 △9월 성지순례 등의 행사를 가졌다. (유원정 기자)

Table with church announcements for NY and NJ, including names of pastors and service times for various congregations like 뉴욕셋째마태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etc.

'남가주를 섬기는 찬양팀들의 찬양과 나눔'

남가주연합찬양축제 5개 팀 출연 성료

남가주연합찬양축제가 13일 '남가주를 앞장서 섬기는 찬양팀들의 찬양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저녁 6시 뉴호프채플(담임 강태영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학과장 윤임상 교수) 주최로 열린 이번 찬

양축제는 뉴호프채플, 동양선교회, LA우리교회, 월드미션대학교 찬양팀, Y's싱어즈가 출연해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며 구원화 사모와 박갑수 목사의 '냉수 한 그릇' 팀이 찬조 출연해 찬양축제를 빛냈다.

이날 찬양축제에 참가한 팀들은 주로 찬양밴드를 기반으로 한 찬양팀들로 마치 LA지역 CCM버전 '밴



남가주연합찬양축제에서 Y's싱어즈가 찬양하고 있다.



영락교회에서 열린 2012 제6회 나눔축제에 마련된 장터에 방문한 자들이 물품을 구경하고 있다.

수익금은 지역사회와 비영리단체 지원

나성영락교회 2012나눔 축제 성황

나성영락교회(임사담임 박희민 목사)는 2012 나눔 축제를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6번째로 열린 나눔 축제는 본 교회 파강장에 마련된 장터에서 의류, 안경, 화장품, 액세서리, 신발, 공예품, 골프용품 등의 다양한 품목을 판매했으며, 먹거리 장터에서는 야채비빔밥, 치킨양념볶음, 만두, 닭죽, 떡볶이, 해물파전, 불고기 야채볶음 등이 판매됐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토요일 텐자 노래자랑, 국악연주, 찬양활동, 라인댄스, 고전무용, 풍악놀이, 사물놀이, 태권도, 재즈댄스, 탭댄스 쇼 등을, 주일에는 살사밴드, 찬양활동, 라인댄스, 본 교회 교육부 밴드 팀의 공연 등이 펼쳐졌다.

박희민 목사는 인사말에서 "나눔 축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번 나눔 축제를 통해 생긴 수익금은 지역사회

회와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올해도 나눔을 통해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넘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절대희망 박순애 전도사 초청 추계부흥성회에서 박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박순애 전도사초청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절대희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신앙으로 성공한 박순애 전도

사를 강사로 초청한 추계부흥성회를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가졌다. 6일 저녁에 열린 집회는 본 교회

드 서바이벌 TOP밴드'를 연상케 했다. 또한 20-40대 청년들로 구성된 Y's싱어즈 찬양팀의 공연은 밴드의 뜨거운 열기를 아름답게 엮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날 찬양축제는 전체진행을 맡은 박갑수 목사의 마침기도로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제 1회 찬양의 밤에서 수화로 찬양하고 있는 남가주든든한교회 찬양팀

"찬양 통해 여호와 이름 송축"

남가주든든한교회 제 1회 찬양의 밤 성료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는 12일 오후 8시 본 교회 찬양팀(팀장 홍광순 권사/리더 김홍철 전도사) 주최로 제 1회 찬양의 밤을 개최했다.

설립 12주년을 향하고 있는 남가주든든한교회에서 처음 개최된 찬양의 밤이기에 더 큰 의미를 안고 96:1-6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통해 여호와와 이름을 송축하고 구원의 기쁨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찬양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1부 예배는 홍광순 권사 사회, 이진도 장로 기도예 이어 김현인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시 96:1-6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통해 여호와와 이름을 송축하고 구원의 기쁨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찬양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2부 찬양의 밤은 김홍철 전도사의 사회로 '오직 주님의 이름 만이'란 주제아래 진행됐다. 찬양 팀들이 지난 4개월 동안 기

도하며 준비한 찬양곡은 참석자들이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유아부 아가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썩뜨네'를 비롯한 율동들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찬양축제를 위해 찬조 출연한 본 교회 당회원들의 찬양과 1,2부 성가대원의 특별 찬양, 에스더 선교회의 아름다운 음률은 이날의 축제를 한층 더 빛나게 했다.

행사를 마친 찬양팀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할 줄 몰랐다.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한 순간에 사라진 기분이다. 기쁘고 감사하다 좀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2회 찬양의 밤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마친 후 은 성도들은 자리를 뜰 줄 모른 채 찬양팀원들이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성자 기자)

성가대의 찬양과 담임 한기홍 목사의 강사소개 후에 박순애 전도사가 '기적 같은 축복'(대상4: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 전도사는 "축복은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삶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기 때문에 늘 통곡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복을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야 하는 것이다"라면서 '기적 같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대회가 다민족연합기도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의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공동주최로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크렌셔 크리스천 센터(7901 S. Vermont Ave., LA) 내 페이스돔(Faith Dome)에서 열린다. 주차비는 무료.

▲문의: (626)372-5151, Globaldm2030@yahoo.com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신인등단 발표 및 시상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 제26회 신인등단 및 시상식이 11월3일(토) 작가의집(2410 James M.Wood)에서 오후 4시에 갖는다. 이날 시상자는 다음과 같다. △시: 당선 홍군식, 가작 정금섭 △수필: 당선 함종택, 가작 김연택.

▲문의: (213)240-0771

LA사랑의교회 제9차 영적쇄신집회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제9차 영적쇄신집회를 '열방이 여호와와 영광을 보게하라'(합2:14)라는 주제로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개최한다. 이번 영적쇄신집회의 강사는 임현수 목사(토론토콘리트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금 오후7시30분, 토 오전6시20분, 오후 7시 주일 1, 2, 3부 예배시간 등이다.

▲문의: (213)975-1111

LA UMC 신학세미나

LA연합감리교회(담임 김세환 목사)에서 열리는 신학세미나가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22일(월) 오후 4시에 있다. 기독교아카데미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존 캄 박사(클레어몬트신학대, 클레어몬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참가비는 20달러(강의와 토의, 저녁식사 제외).

▲문의: (310)645-3698, 3699

남가주사랑의교회 제16차 의료사역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제16차 의료사역축제가 '주 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27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갖는다. 이번 의료사역축제의 검사항목은 기본 혈액검사, B형 간염, 전립선, 갑상선, 골다공증 검사, 독감예방주사.

▲문의: (714)788-9430, (714)222-0258

뉴비전교회 가을부흥회

뉴비전교회(담임 이진수 목사)는 가을부흥회를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일정은 26일(금) 저녁 7시30분, 27일(토) 새벽 6시30분, 저녁 7시30분, 28일(주)이며 27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평신도 제직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문의: (408)719-0000

7-9월 생명의 전화...침묵, 구직문의 최다

이민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을 위해 전화상담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생명의 전화(대표 박다윗 목사)가 지난 7-9월까지의 상황을 전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통계는 침묵 전화가 가장 많았으며 정보안내(구직문의)가 그 뒤를 잇고 있어 경제적인 불황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독과 외로움, 부부갈등, 인간관계를 호소하는 전화들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물질로 인한 어려움과 삶의 외로움이 안겨주는 고통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앙문제나 삶의 의미에 관한 전화도 상당수

있었다.

생명의 전화를 운영해 오고 있는 박다윗 목사는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적 한파가 아직도 힘들게 하고 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동포들의 생활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행히 생명의 전화와 연결이 되면 첫마디에 '죽고 싶다'고 울먹일 땐 상담원들도 같이 목 놓아 울기도 한다. 이 생명의 전화가 숨통을 트이게 하는 대화의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했다.

(기사제공: 생명의전화)

JoyLA.com

추제별성서대전

80% OFF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전7권)

이끼 원백 성경 성구 대전

정가 \$758.00

save 69%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남해스
2권:다~롯
3권:롯가~소베
4권:소베~모살
5권:모살~종
6권:종~뱃뱃
7권:뱃뱃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들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비상! 캠퍼스 선교

청년사역 목회자들은 대학 내 비기독교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과 함께 경건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대학 캠퍼스 내 동역자인 선교단체와도 연합해 효과적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회 밖 청년이 가고 싶은 교회로=청년사역 목회자들은 비기독교 학생들이 기독교 학생들과 어울리는 단어로 '맹목적 추종' '이기주의' '기득권' 등 부정적 표현을 많이 선택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환 서울여대 대학교목 목사는 "외부의 비판을 틀렸다고, 일단 와 보면 다르다고 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옳고, 영적 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인식되도록 '보편성'과 '종교적 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목사는 교회 대학·청년부의 '전도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기독교 학생

청년사역 목회자·캠퍼스 선교단체 "우리의 종교적 매력, 보여~줘"

들의 반감을 감안해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이제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전 교회 이미지를 쇄신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보편적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은 전 교회적으로 연대해 적극 고쳐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 필요=선교단체와 교회 청년·대학부

목회자 대부분은 시대변화 흐름에 민감한 요즘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캠퍼스 사역자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장근성 학복협 총무는 "현재 캠퍼스 선교는 큰불이 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선교단체나 지역

교회가 각자 불을 끄려고 하는 게 문제"라며 "각자의 장점대로 역할 조정을 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총무는 "이러한 위기상황이 지속된 것은 불을 어떻게 끌지 함께 논의할 협의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캠퍼스 선교 주체 간 연합뿐 아니라 대안 제시를 위해 학복협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건훈련 강화=이밖에도 청년

사역 목회자들은 "명목상 크리스천'을 '거듭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선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기초한 경건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 기도, 구원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스스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재환 목사는 '도제식 소그룹 제자양육'을 제안했다. 이 목사는 "이번 통계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변화는 비기독교 학생과 기독교 학생의 '차이 없는 삶'이라며 "이를 극복키 위해 교회 청년·대학 사역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소그룹으로 제자양육을 시도해 '차이 있는 삶'을 살도록 방법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속회 요구 불응엔 총회장 탄핵" 예상합동 비대위 결의문 채택

예장 합동 총회정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1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다음달 15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총회정성화를 위한 전국목사장로 연합기도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차기 총회까지 속회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무 해임건과 총회장 불명예 퇴임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노회장 105명이 비대위에 동참하기로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단 전체 노회장 136명 중 78%에 해당되는 수치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 파회선언은 무효이며 속회 요구에 불응할 경우 총회장을 불신임(탄핵)한다"면서 "총회 현장에 용역을 동원하고 가스총으로 총대를 위협함으로 교단과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총무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총회 정성화까지 상비

부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유보하며 총회장과 총무를 교회 강단에 세우지 않으며, 노회 시 인사시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혁주의 정통 신학과 신앙을 사수하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관련, 교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회장 서장수 목사는 "총회장은 97회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50개 이상 남아있음에도 교단헌법 절차와 의식을 무시하고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파회를 선언했다"면서 "이것은 총회장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으로 총회장 불신임과 총무 해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준모 총회장은 기독교신학과 인터넷에서 "97회 총회는 헌법에 따라 파회를 적법하게 선언했으며, 총무는 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인사인데다 가스총 사건에 대해서도 정중히 사과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6.8% 불과

학원복음화협, 대학생 의식과 생활 연구조사

[CBS]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연합체인 학원복음화협회가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약화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 대학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원복음화협회는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1천359명을 대상으로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개신교인은 17.2%, 천주교 7.3%, 불교 8.8%였으며,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66.7%였다.

학복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싼

등록금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최근 대학생들의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요즘 대학생들은 전공 서적 외에 한달 평균 0.7권의 책을 읽고, 하루 평균 2시간 42분 동안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며, 전체 대학생의 3분의 2가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것은 대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1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66.7%, 1년 간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78.5%나 됐다.

특히 남북통일이 반드시 되어 한

다는 응답자는 6.8%에 불과한 반면, 통일될 경우 통일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62.6%나 됐다. 학복협은 취업 준비에 집중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성 개방 풍조는 대학생들 사이에 폭넓게 퍼져 있었다.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3년 전 조사에서는 72.8%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87.6%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7%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답했으며, 기독교인들도 큰 차이 없이 44.1%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학원복음화협회의 상임총무 장근성 목사는 "이번 조사 결과 대학생들의 성 윤리 의식이 세속화되고 있

으며,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독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도 엇날 수 있었다. 응답자들에게 22가지 단어를 제시하고 각 종교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모두 표기하도록 질문했는데,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로는 '사랑'이라는 응답이 60.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비해 '희생'이라는 응답이 적었고, '맹목적 추종', '비합리적 조직'이라는 부정적 응답도 많았다.

학복협은 이번 조사결과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앙생활이나 의식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서 복음과 더불어 도덕적인 삶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개선과 종북세력 척결 한국교회 시대적 사명" 북한 구원 3000인 목사단 성명 발표

탈북난민 복송 반대와 북한 구원을 위한 3000인 목사단(이하 목사단)이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종북세력 청산이 한국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원(예장 합동) 김영현(기감) 양병희(예장 백석) 이정익(기성) 이종윤(예장 통합) 최성규(기하성 여의도순복음) 목사 등 각 교단의 대표

목회자가 참여하는 목사단은 북한 구원을 위해 3000인 목사단, 장로단, 여성 지도자단을 결성해 탈북자 복송 반대운동과 인권 개선운동

을 전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목사단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고 개혁개방, 핵 폐기를 하도록 북한인권법 제정 등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기독교인도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유린을 외면하는 이기적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탈북난민 복송 반대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동북아에서 총회를 갖는다면 동북아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 평화를 구실로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면서 압제자 김정일의 편에 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목사단은 또 "더 이상 종북세력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되며 종북좌파 국회의원은 제명돼야 한다"면서 "종북좌파가 기세를 부리는 한 선진화도, 통일도, 안보도, 평화도, 보수진보 간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탈북자를 돕다 구속된 전 재규 선교사의 석방도 촉구했다. 목사단은 계속적으로 복송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찬양 악보·가사 무심코 복사 저작권 침해 우려... 처벌 받을 수도

악보·가사를 복사하거나 예배 중 가사를 투사하는 일,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편곡하는 행위, 찬송가가 포함된 예배를 인터넷으로 방송하거나 예배 중 찬송가를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행위...

앞으로 교회에서 무심코 이런 일을 했다가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 내에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교회들이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CCLI(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지난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사

설립 설명회를 갖고 "교회사역의 일환으로 교회에 서비스 및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CCLI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찬송가, CCM을 포함한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국제적인 기업이다. 킹스웨이, 호산나인테그리티, 힐송, 크리스탈린 등 해외의 유명 워십곡들이 이 단체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전세계 27개국 24만여 교회와 가입돼 있

다. CCLI 코리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유일 업체다.

교회들이 저작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CCLI에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액스는 교회의 규모(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수)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400여명 출석 교회의 경우 연간 41만8000원이다. CCLI에 가입하면 15만개 이상의 곡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악보집이나 악보로 된 음악을 구매하거나 저작권자 개개인을 통해 개별적인 곡 사용권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찬양사역 듀오인 '좋은씨앗'의 이우정 목사(예배사역연구소 대표)는 "교회 저작권 이슈에 대한 건강한 해법은 더 이상 은해라는 명목 아래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작료 징수를 통해 그동안 지출되지 않던 교회 재정이나 손실을 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긍정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계 단신

한기총, 정관 변경 승인 받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지난 5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장관 최광식)로부터 정관 변경

을 승인 받았다. 한기총은 지난 2월 14일 23회 정기총회 속회에서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뒤 문체부에 변경신청을 냈으나, 문체부는 변경된 정관 내용 중 일부가 상충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임시총회를 열어 수정한 정관을 통과시키고 지난 8월 13일 정관 변경을 문체부에 다시 신청한 바 있다.

성시화본부 2012 유럽성시화대회 마무리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전용태)가 주관한 2012 유럽성시화대회(이하 대회)가 지난 11일 이탈리아 로마 한인교회(김진광 목사)에서 열린 이탈리아 대회를 끝으로 6개국 9개 도시 순방 일정을 마쳤다.

한국과 미주 등 80여명의 성시화운동 지도자와 한인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 연인원 1만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에서 잇따라 열렸다. 이탈리아 로마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에 위촉을 받은 김진광 목사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곳 로마는 그 어느 지역보다 유럽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교지"라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다. 로마한인교회는 33년 전 설립됐다. 현재 로마에는 4개의 한인교회가 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에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자가 명품 복음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르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www.laq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83.9101 Email. laquesthouse@live.com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다양한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탁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정도용 필리프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지수타입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생명익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유통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코스엔 필리프 저서 워싱턴DC 저서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선교지 편지

아르헨티나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9월은 봄의 날 (21일)이 있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는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사회, 정치의 혼돈에서 움츠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9월이 되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고 희망을 갖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의 불안한 마음에 희망과 평강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6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행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번 소식을 통하여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8월 18-21일 까지 아르헨티나 남쪽 1800km에 있는 꼬모도로 리바다비아(Comodoro Rivadavia)시 중앙침례교회에서 제2회 선교대회와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소니아라는 자매가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또 훈련 받으면서 그녀의 마음에 심겨진 작은 선교의 불씨가 온 교회로 번져 3년 전에 교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선교대회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 두 번째 선교대회를 하면서 소니아 자매의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 도시 변두리 출신인 그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부르심을 오래전부터 확신하고 선교신학을 졸업한 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여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파송 받기를 기다리면서 선교현장에서 필요한 몇 가지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앙침례교회에서는 제1차 선교대회를 통하여, 소니아가 가르치던 주일학교에서부터 점점 선교의 불씨가 확산되어 온 교우들에게 번지게 되었

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소니아를 선교사로 축복하며 파송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앞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축복으로 파송하는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주어서, 지난날 가르치던 학교 제자인 소니아를 아프리카 세네갈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러한 영광을 얻게 하였고, 또 그 교회가 제2회 선교대회에 강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온 교회가 열정으로 준비하고 또 파송식을 거행함으로 많은 은혜

되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파송 받는 엑토르 목사님의 가정은 모비미엔또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훈련 받아 파송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온 교회가 눈물로 파송식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16년 전 저희 가정이 한국 내일교회를 통하여 파송을 받던 일이 생각나서 더욱 감격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파송 받은 마리오와 사브리나 선교사님 가정과 이번에 파송 받는 엑토르와 로사 선교사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맞겨진 선교현장 가운데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위하여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8월 31일은 아르헨티나 북부지방인 살타(Salta, 1500km)시에서 목회자 세미나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에 있을 살타 1차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낯자들이 변경이 되고, 또 참석 예정자들이 변경이 되면서 수도 없이 전화로 연락을 하고 또 강사 및 강의안 준비 등을 준비하느라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5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목회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인 목회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과 목회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이라고 생각했기에, 이곳 현직인 목회자 협의회를 통하여 여러 번 의견을 나누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목회와 가정"이라는 과목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현직인 목회자 부부를 잘 섬기는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이 땅의 목회자 부부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흥-정명희 선교사 드림
▲이메일: carlospark@gmail.com



제 1차 살타(Salta) 목회자 세미나



칠레로 파송받는 엑토르와 로사 부부

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목회컨설팅하며 협력하는 교회 중 모비미엔또 데페 교회는 5월 25-27일까지,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선교대회를 열고, 두 번째 가정(엑토르와 로사) 칠레 안데스 산간 지방으로 선교사 파송식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미 2년전에 첫 번째 선교사로 마리오와 사브리나 부부를 브라질로 파송을 했습니다. 특히 사브리나는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사마리아인 선물박스" 사역을 통하여 이미 12세 때에 헌신을 했던 자매입니다. 그녀가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때 한 헌신의 열매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제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 개최

12월 3-5일 미드웨스트대학교, 세계교육선교 목적

국제교육협력기구(IEC)와 세계 크리스천 스쿨 네트워크(WCSN)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가 12월 3일부터 사흘간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 송 박사)에서 개최된다.

예정 강사는 국제교육협력기구(IEC) 총재, Bill Federer, 미조리 주의회 국제교류와 Job Creation 위원장 Rep. Jerry Nolte 하원의원, 미조리 주하원의원 Rep. Lindell F. Shumake, 미조리 주 은퇴교사연합회 사무총장, Midwest University Dr. James Song 총장, 세계한인선교협회 중앙의장이며 몽골국제대학교(MIU)이사장 이승중 목사, IEC Teacher Recruitment and Training Director Mr. Robb Lynch, 세계한인선교사협의회 대표회장 강성일 박사, 파라과이 기독교예수학교를 설립한 정금태 박사, 대전대덕단지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면서 차세대 리더교육을 실천하는 늘사랑교회 정승룡 박사, 페루 GGU Director 지영민 대표, 몽골 후레대학교에서 컴퓨터교수로 사역한 바 있는 IEC-School Management

Program Training Director 이희철 박사 등 세계 각지에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교장들이 강사로 나서게 된다.

매년 세계 주요 지역(미국, 태국, 케냐, 한국, 이스라엘 등)에서 개최되는 세계교육선교 컨퍼런스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 지도자로 키우는 사역을 통해 단기간 내에 학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도자 교육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단기로 선교지 학교에 교육선교사로 봉사하기 원하는 미국인들도 이 기간 동안 세미나를 받을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1)현재 해외 학교 설립 운영자 2)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해외국제학교 설립 비전자 3)기존의 학교를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분교설치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원하는 학교 4)현지에 미국대학 GGU 분교 설치희망 5)교육기관의 행정과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희망 6)현재 선교지 학교를 운영하거나 설립 계획하는 교회, 교육선교사들 희망하는 전직교사, 교수, 전

문인, 전문기술자, 대학생, 장단기 교육선교사이다.

이번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IEC/WCSN 멤버십을 부여하며 회원학교에는 우선적으로 미국인 교사 파견과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준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국제학교, 대학프로그램)하며 학교의 여름방학 등 특별 프로그램에 교육협력부서(교사)를 파견하고 회원학교 간 교사, 학생, 교환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선교적 차원에서 기자재 등을 협력 지원하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IEC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표어로 인적자원개발, 교육콘텐츠개발, 교육정책연구개발, 교육봉사, 지식기부를 통해 지구촌 인재를 발굴해 지적, 인성, 영성, 리더십을 갖춘 국제적인 인재로 양성, 세계 선교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Jp@Midwest.edu, 인터넷전화 070-8690-2662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IEC)

선교지 편지

일본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의 계절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이토 유카리는 분입니다. 그녀는 한글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한글시간 후에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달 정도 지났을 때 이 분의 대답은 자기는 삼촌이 불교의 승려이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망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영혼의 생수를 갈망하는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예수님, 소외된 자들을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회

복시켜주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크리스천들만 모이는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는 자리에 사이토상을 초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과 대화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사이토상이 모임의 모습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과 교제했던 사람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을 알고 집에 돌아갈 때 자신이 내려야 할 전철역을 한참 지나서야 다른 곳에 와있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날 밤 늦게 이메일(Email)이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는데 언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약속날짜를 잡고 3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질문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 별세하신 할머니를 모시는 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집에 불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례식과 명절날 친척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주일예배는 참석해야 하는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도록 하셨습니다. 사이토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의 고백과 예수님이 주(Lord)되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뻐서 가슴이 벅차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무슬림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 출석하라고 하면 기분이 개어집니다. 자신들의 집단 속에서 잠정적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상황을 살피고 조금씩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도 남편과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아직은 남편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하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와 이전과 달리 변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점차 두려움 대신에 믿음과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순종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새벽5시에 일어나서 꼭 기도를 드리고 자기 딸(초등학교 6학년)에게는 저녁에 잠언서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읽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우 화요일에 있는 한글, 성경공부, 찬송과 식사교제가 부족하여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수요일에도 다시 찾아와서 1시간 성경공부를 하고 갑니다.

(14면으로 계속)

밥(Ba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 명쾌한성경해석패러다임!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복음서들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저자와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히브리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서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바레복음의 깊이와 경이성을 깨닫고 있다. 독자들에게 탁월하고 풍부한 해석적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난 절기인 유월절, 이스라엘의 기부, 농사적 사항, 천천의 계절의 식물까지도 알버튼한을 토대로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재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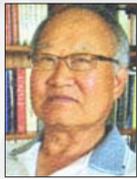
- 휴신신대원 총장
- 에부알말내대학 정경지리 석사 학위 취득
- 현세지대 대학 석사 학위 취득

http://www.israelacademy.com
6월부부터 이스라엘 입국비대금까지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12
6.20.-24. COEX A/B 홀
www.sibf.or.kr

기독교문학과소설

여리고로 가는 길 (17)



정중해 박사 (문학인)

“들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의 도움으로 언제든지 그런 고리나 밧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그 죄의 밧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요즘 현수가 달라졌다면 그건 순전히 예수의 은혜입니다.”

진태는 안 목사가 기독교 성경만 아는 줄 알고 불교 이야기와 한문 표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가 안 목사가 자기도 모르는 용어를 써가며 불교 사상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 이상 더 불교 이야기는 않고 접어 버렸다.

진태는 현수에 대해 낙관했다. 안 목사의 이야기가 현수뿐만 아니라 자식을 괴롭힌 아버지에게도 많은 암시를 주는 말로 들렸던 것이다.

진태가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니 현수가 식탁에서 아직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진태는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 뒤로 살며시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살짝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말로 격려를 했다.

“현수야, 요즘 네가 정신이 돌아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걸 보니, 아빠는 신이 나서 날아갈 것 같구나!”

“아버지, 나 이제 괜찮아. 걱정 마. 담임선생님도 내가 학교성적이 좋아지니까 요즘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어.”

“그래 선생님께 뭐라고 했어?”

“교회에 나가고부터 새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요사이는 같이 운동하느라 바쁘다고 했어. 안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진태는 현수의 변화에 크게 고무되었다. 진태는 현수가 순전히 부모 탓으로 괴로워하던 정신적 질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오로 이제는 자기의 밝은 미래를 향해 새 출발을 했다는 확신이 생겼다.

진태는 그다음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청소년들의 농구경기를 구경하러 현수를 따라 교회 근방에 있는 YMCA 체육관에 나타났다. 진태는 현수가 유니폼을 입고 뛰어나와 자기 팀에 합류하는 것을 신기하고도 자랑스럽다는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교회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안 목사가 허름한

회색 운동복을 입고 호각이 달린 줄을 목에 걸고 나타나 대기하고 있는 경기자들 앞에서 잠깐 훈시를 했다. 훈시가 끝나고 그들이 경기 태세로 흠여지자 휘익하고 자지러지게 호각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경기가 시작되었다.

현수 팀의 공격수가 공을 물고 가면 진태는 마음을 졸이며 쳐다보다가, 슈팅을 해서 공이 링 그물을 흔들면 그는 마구 손뼉을 쳤다. 어쩌다가 현수가 던진 공이 링 속에 들어갔을 때, 진태는 너무나 감격해서 “현수 잘한다! 현수 잘한다!”고 몇 번이나 고함을 질렀다.

진태는 그날 경기가 현수 팀의 승리로 끝나자 경기 심판과 감독을 하던 안 목사에게로 다가가서, 그날 두 팀 선수들의 점수 값을 자기가 벌 테니 아이들을 몽땅 가까운 식당에 데려가자고 제안을 했다. 이 말을 엿들은 현수가 아버지 곁에 와서 근방의 피자집으로 가자고 귀띔을 했다. 그러자 주위에 둘러선 다른 아이들이 알아채고 일제히 “에이!”하며 환성을 질렀다. 진태는 기분 마음으로 안 목사와 여남은 명이 활짝 웃는 그 많은 현수의 친구들에게 가까이 점심을 대접했다.

현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즐거웠다. 진태는 자기도 이제는 과거의 결과에만 붙들려 있을 게 아니라, 현수처럼 인과의 고리에서 빠져나와 밝은 세상 사람들과 합류하고 싶었다.

진태는 아들인 현수에게는 자신이야말로 여리고 도성의 강도와 같은 가해자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사생아로 태어났으니 자기도 일종의 피해자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자식을 물이나 날아준 아내와 이혼까지 하고 이제는 할아버지는 따분한 인생으로 전락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자업자득인, 자신의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진태는 안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결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열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 즉 현재는 과거의 종착점인 동시에 또한 미래로 출발하는 시발점이기도 하다는 그 알쏭달쏭한 말을 되씹으면서 진태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끝)



선교지 편지

볼리비아

8월-9월 선교소식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 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에가3:22-23).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즐거운 한기가 잘 보내셨는지요? 선교지 볼리비아에서의 한기위는 송편도 먹을 수 없고 토란국도 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보내주시는 이 땅에서의 한기위도 아름답습니다.

벤엘교회는 7월과 8월 분당 바닷을 수리하면서 세멘트 바닥에서 타일로 바꾸느라 성도들 모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난 후 벤엘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꾸미고 관리하는데 많이 소홀했는데 이제는 바자회나 헌금을 통해, 또는 시간들로 봉사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조금씩 꾸며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왈리장(살내미니 배구장)의 내장공사로 한창 바쁘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가장 추운 8월 벤엘교회 어린이들을 실내 영양을 찾아 따뜻한 물에서 목과 마음을 씻으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였습니다.

이건화, 김성제 선교사는 7차 한인선교대회에 참석하고 후원 교회들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건강진단도 받았는데 고산으로 인해 몸이 매우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에 돌아오자마자 김성제 선교사는 고산병이 2번에 걸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건화 선교사는 김성제 선교사를 간호하느라 몸살과 고산병을 강하게 앓았습니다.

9월9일 Los Amigos(로스 아미고스) 교단 44주년 기념행사 강사로 초청되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9월21일은 봄의 날, 사랑의 날,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벤엘교회에서는 미스 벤엘을 뽑는 행사를 하였는데, 미스 벤엘로 뽑힌 가르멘 재배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교성적도 상위일 뿐 아니라,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이며 각종행사에서 관뎀마임을 도맡아 행사를 복돋우는 학생입니다.

9월22일은 친구의 날, 사랑의 날,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부부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전 여러 가지 게임들과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 등등을 묻는 질문으로,

지난날들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는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9월23일 오전예배를 벤엘교회에서 오후에는 골고다 교회에서 시편 70편 “주를 찾는 자”로 16주년 예배를 인도 하였습니다.

9월25일에서 28일 목회자 성경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마태복음 강의와 일대일 제자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비행기표 값도 지원을 해주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참석을 하였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우리 부부가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으며 벤엘교회에서 다시금 말씀의 중요성과 재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0월13일, 젊은이 예배에서 전도되어온 학생들을 위한 야외예배와 친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2. 세워진교회(벤엘교회, 유니 교회, 비아차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이 채워지도록
 3. 세워진 교회들이 영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4. 새로 시작하는 지도자 재양육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지도록
 5. 전도되어온 젊은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 고산(4,100m) 라파즈에서 이 건화, 김성제 선교사 드림

RV순회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년 4개월을 길에서 살며 대륙 횡단을 20번을 하면서 복음 전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복음의 동역자님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 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사역 속에 능력으로 역사 하셨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을 하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사랑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을 감사하여 통곡하는 이들을 볼 때의 감격은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부족

한 저희부부를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를 하게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어린이이 신앙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영혼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솔직하게 전도에 대해 가르친 적이 없으며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구원이고 성도는 마땅히 전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헌신합니다.

지금까지 북미 지역에서 580개 교회에서 간증과 전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도전 받고 결단한 성도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2:19-20).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오 목사)에서 제57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은혜가운데 잘 마치도록 역사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오셔서 다시 한 번 복음을 재무장하고 구령의 열정을 갖으셨다는 고백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길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도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RV에 복음을 신고 새 10년을 향하여 또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시는 복음의 동역자님 사랑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안에서 복음의 동역자 되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California LA에서 10월 1일 2012년 나성영락교회 RV순회전도자 박승묵 박영자 드림

(13면에서 계속) 일본선교편지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감사와 눈물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나가면서 가슴이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루는 한국말로 작은 쪽지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 생님(목사), 사모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정말 각박하고 사람 관계를 무시위하는 일본, 다른 사람과 다른 왕도와 견제와 압

력을 가하는 이 일본에서 사이토상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며 남편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사이토상이 믿음이 잘 성장하며 그 가정을 구원하는데 열성을 가지도록
2.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는 동의

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사부야, 다케다, 모리 상, 바바상 가족)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3. 저희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 지도록(요15:4-5)

도교에서

유영재, 유은희(승민) 선교사 올림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연결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 철저한 에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및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회원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일반달력/기독교달력

공정도 가격세일

- 달력/수첩 주문제작 가능
- 교회 로고와 이름 인쇄 가능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 철저한 에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및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밝은 LCD화면
- 원용액 가변용 렌즈
- 본체 고정용 스탠드
- USB 호스트 가능
- 메모리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실시간 연속촬영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정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엘리성주사
에어드수정장대상
EH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장유사 불타오른 독특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제조업체인 엘리성주사
EHD Design 크롬 목재 인출
대형 예수교양로(합판)
지향상업용 선형
타일/사출용 목재(MDF)로
수제작(가공)된
수제작(가공)된
수제작(가공)된

역시에도 다양한 목재종류와 크리스탈 성구사 있습니다.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0011/Fax. (718) 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il Ave.
Suite 200 L.A., CA 90005
213-925-5434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가정사역 칼럼



행복의 원천인 마음 발을 가꾸라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진정한 행복은 생각과 마음에서 솟아나온다. 잠언에서도 마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길 때 가능해진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발에 비유되곤 한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 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퀴가 덮여질 수 있다고 하셨다. 또한 돌밭이나 길가 발은 흙이 별로 없거나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지고 굳어진다 했다. 결국 좋은 마음 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려나 걱정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한다. 혹여 끊임없는 염려나 근심 속에 쌓인 상태로 살고 있다면, 잠시나마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

과 있다. 그러한 감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스며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의 색깔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감정은 네 가지로 뚜렷하게 분류된다. 예로부터 희로애락(喜怒哀樂)이라 하여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을 말해왔고, 근래에는 두려움과 놀람 등에 대한 감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배우자에게나 가까운 친구에게 솔직히 고백해 보라. 그때 우리의 집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 마음의 의지적인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의지란 내 마음에 뜻하는 바, 혹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자세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힘든 상황에 빠지거나 갈등 상황 속에서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인생의 행복을 보다 쉽게 누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 갖는 것이 기초이듯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확신 갖는 것 중요

앞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삶에서 지적인 면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넘쳐나는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가 더 큰 문제이다. 쓸데없는 정보를 다치는 대로 마음 발에 뿌리려 한다면, 우리 정신과 마음이 혼란에 빠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치 정크 푸드를 마구 먹어 우리 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듯이 말이다.

결혼생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겠지만, 잘못된 정보나 오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오늘날은 감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감성이 강조되고, 감성이 민감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

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매우 유익하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인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문자적으로는 '돕는 자', 혹은 '바로 옆에서 부름 받은 자'란 의미인데, 그런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발적인 변호사인 셈이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거나 살아보지 않은 앞날들을 맞이할 때, 끊임없이 다가오는 불안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갈 길을 보여 주는 성령님께 의지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16: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신앙 성장 (막10:32-45)

주님께서 세 번이나 수난을 예고하시고 그 예고대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여쭙구니없는 청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교육을 받았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처음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

은 신앙의 연륜과 신앙 성장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신앙은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엡4:1),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애를 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 절박한 신앙 (막10:46-52)

바디매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음에도 개의치 않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소경인 바디매오에게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때가 자기에게는 일생 일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은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항상 절박함의 연속입니다. 한시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늘 영적 싸움을 싸워야합니다. 또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야

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박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괴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시69:3)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 잠자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계3:1,2).

수 드리는 신앙 (막11:1-11)

7절은 드디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나귀를 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에는 안장이 없기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겂옷을 나귀에게 걸쳐 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겂옷이 어땠을까요? 때에 찌든 천한 옷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보좌"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 드리면 귀한 것이 됩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린 결과 몇 천 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드리면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우리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고전4:7)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낡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됩니다. 또 드리는 자에게는 드릴 것이 풍성하여지도록 축복 해주십니다. 주께 드리기를 힘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 상업적 신앙 (막11:12-19)

17절은 주님께서 성전을 상업화시킨 자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즉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비난 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강도의 굴혈과 같았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은 상인 및 환전상들과 결탁하여 성전에서 제물용 짐승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해야 할 성전과 하나님께 대한 신

앙, 그리고 경건이, 타락한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업처럼 여기고, 교회를 이용해 정치적, 사업적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직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 태산 같은 죄 (막11:20-26)

주님은 23절에서 믿는 자는 산을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힘든 일을 '산을 옮기는 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율법선생을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큰 문제를 '태산 같은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큰 문제라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문제입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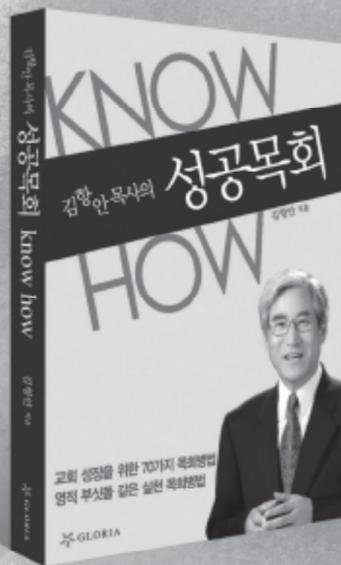
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면 태산 같은 죄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7:19)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토 관용의 신앙 (막11:27-33)

28절 유대종교지도자들이 성전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을 향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정해 놓은 종교의 법과 형식에 위반되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5장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종교지도자들은 그가 나음을 입은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지만

했습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각도로 연구하다가 안식일에 편지쓰는 일, 오리 이상 걸어가는 일, 무화과열매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일 등을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38년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형식을 따진 것입니다. 형식에만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형식주의에 얽매는 것을 경계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관용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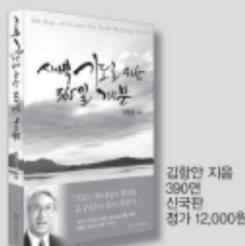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실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문 우수도서 선정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희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도대회'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옷 입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는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김항안 목사 철학박사, 선교학박사

목포 교육대학, 거울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브리검스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배울신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중회 신학, 서울 신학대 등 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벌 선교의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영성의 원천', '절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감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능력향상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순수와 교회성장', '대포기도록',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헌금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들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말교육법', '말씀', '1807-2012 복음적인 예배의 설교를 위하여', '대박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위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인/터/뷰

미주내 이슬람복음화를 꿈꾸는 임준규 선교사

“미주내 무슬림을 향한 선교가 시급한 때입니다”

LA에서 다민족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임준규 선교사(GMP소속)가 미주 내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의 도전을 받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15일 기자와 만난 임준규/임보희 선교사는 자신의 신앙여정을 들려주며 기도를 부탁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임준규 선교사는 1994년 조지워싱턴유니버시티 유학생이 돼 미국에 첫 발을 디뎠다. 새롭게 미국 생활을 시작한 그는 워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세례를 받았다.

1998년 예수전도단 수련회에 참석한 임 선교사는 그곳에서 요한복음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중생의 체험도 맛보았다. 결국 그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자 올랜도 RTS에서 목회학을 공부한 후 목사가 돼 올랜도 한인침례교회를 담임했다. 그곳에서 담임목회를 하며 감옥



미주내 이슬람복음화를 위해 요르단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임선교사 부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 내에 있는 무슬림들의 실상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데이터를 뽑아보니 미주 내 무슬림들이 52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그중에 절반

어머나가 피아니스트인 임보희 사모는 어머니의 재질을 이어받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피아니스트다.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

그런 임 사모에게 어느 날 임목사가 전화를 했다. “이슬람권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고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긴 세월 지나 확인된 선교지가 이슬람권인가? 나는 괜찮은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감사함과 두려움이 눈물로 표현되어 흘러내렸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자, 아이들이 순수하게 응해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리라” 이렇게 맘먹은 임 사모는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 셋이 모두가 “아버처럼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임준규 선교사 가족은 향후 2년 동안 요르단으로 가서 언어습득 및 문화 체험을 하고 돌아와 ‘아랍어로 복음 전하기 및 미주 내 무슬림 개종자 공동체 씨앗 뿌리기’를 이뤄가고자 한다. 이후 미주 내 무슬림 개종자 교회 개척과 이민자들에게 대한 사역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미주 내 무슬림 디아스포라 선교사 동원사역까지 확대해 가고픈 비전을 품고 있다.

불신자 가정과 4대째 믿음의 가정 자녀의 만남
가족 모두 이슬람 선교사로 헌신위해 준비 중

(Jail) 선교와 캠퍼스, 올랜도 지역 백인동네 가정들을 돌며 전도에 전념했다. 3년쯤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민족을 섬기도록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선교의 사명을 품은 임준규 선교사와 가족들은 서둘러 삶을 정리하고 캐나다 선교훈련학교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재훈련을 받고 LA에 옮겨 앉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사역에 대한 상세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LA에 도착해 다시 감옥 사역을 시작했다. 감옥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 매주 화요일이면 그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토요일에는 다민족들이 밀집해 있는 맥아더 공원을 찾아가 그들에게 빵과 복음을 나누며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미국내 무슬림공동체

그러던 그에게 미주 내 무슬림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된 것은 이준호 목사(GMP선교회 미주대표)를 만나고부터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의 구원’이라는 생각이 임 선교사의 마음에



임준규선교사가 맥아더공원 사역팀들과 함께 빵과 복음을 나누고 있다.

은 라티노, 흑인 등이 개종한 무슬림이 되고 나머지 반은 이곳으로 이민온 아랍계 무슬림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미시건 주 어느 한 지역에는 무슬림 밀집지역으로 그곳에서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도 이어지고 있었다.

미주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슬림들이 임 선교사는 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기로 작정했다.

온 가족이 선교사로 무장, 요르단으로

난 임 사모는 힌돌교회 반주자로 헌신하며 예수전도단에서도 사역해 오다 임 목사와의 결혼으로 1996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반주자로 섬기며 랫슨을 통해 임 목사의 사역을 도왔다. 사실 임 사모는 청년시절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기쁨으로 임 목사의 사역을 도우며 최고의 동역자로 일하며 나라를 부르신 그곳이 어디인지 기대하고 있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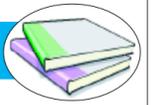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다.

이들 가족으로만 이 큰 꿈을 이룰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절실하다. 요즘 임 사모는 40일 금식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며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파송교회를 위해서, 또한 사역비전을 계속해서 나눔으로 동역교회와 후원교회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2. 내년에 요르단으로 나가기 위한 재정플랜을 채우고 현지적응과 온가족이 이사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3. 아랍어를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이슬람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4. 임보희 선교사와 다윗, 하리, 규리의 현지 적응 및 학교문제를 위해서.
5. 특별히 영적전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메일: juneqlim@yahoo.com (이성자 기자)

새책소개



칸타타 ‘한 아들 주셨네’, ‘베드로의 고백’

저자 백경환 목사

가나안교회 (담임 이철 목사)에서 음악목사로 섬기고 있는 백경환 목사가 부활절 칸타타 ‘베드로의 고백’과 성탄절 칸타타 ‘한 아들 주셨네’(기음출판사)를 소개했다.



지난 3월 출판해 부활절에 연주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지난 7월 작곡발표회에 선을 보인 ‘한 아들 주셨네’는 백경환 목사가 출간한 10번째의 칸타타 곡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발표한 후 성탄절 칸타타를 발표하고픈 꿈을 안고 있던 차에 이상윤 장로가 가사를 보내줘 6개월간 기도하며 준비하여 완성된 곡이 ‘한 아들 주셨네’이다.

이 곡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물론, 죄

구원의 메시지 담아 듣는 이들 깊은 감동

악 속에 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받는다는 구원의 메시지에 포커스를 두고 작사 작곡했다. 부활절 칸타타 역시 구원의 메시지로 장식되어 있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백경환 목사는 “음악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주 찬양보다는 예배 찬송을 중심으로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을 작곡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며 “부활절과 성탄절 칸타타 역시 음악예배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도 30분정도의 음악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가나안교회 음악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백 목사는 가나안교회 40주년을 기념 음악회를 계획하고 모차르트의 대관식미사곡을 중심으로 명성가 6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음악회에는 독창과 소프라노 이지은, 바리톤 이영 전도사, 핸드벨과이어 등의 특별 출연도 준비된다.

향양대를 거쳐 뉴욕 메네스 음악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한 백 목사는 고교시절 음악사 책을 보다가 작곡가들이 중심이 된 것을 보고 본격 작곡수업을 받기 시작해 1년 만에 연대 작곡경연대회에서 수석을 차지한 바 있는 음악의 귀재이다. 그는 1960년부터 성가대를 지휘하며 300곡에 가까운 작품을 만드는 등 50년간 음악인생을 살았다.

‘베드로의 고백’, ‘한 아들 주셨네’ 칸타타 구입은 단체구입이 가능하고 자세한 것은 (213)210-3283 /388-19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세계 인재 발굴, 양성과 세계교육선교를 위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제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세계 교육선교를 위한

제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

7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Mission

인적자원개발, 교육컨텐츠개발, 교육정책연구개발, 교육봉사, 지식기부를 통해 지구촌 인재를 발굴하여 지성, 인성, 영성, 리더십을 갖춘 국제적인 인재로 양성하여 세계선교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선교지에 학교를 세워 교육선교를 하거나 계획하는 교회, 교육선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전·현직 교사, 전문인, 전문기술자, 대학생 등 단·장기 교육선교사로 사역하기 원하는 분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신청기간
2012년 10월 30일 까지

신청접수처
jp@midwest.edu

일시: 2012년 12월 3일-7일

장소: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공항 Lambert St. Louis International Airport)

컨퍼런스 참가자혜택

1. IEC/ WCSN Membership 부여
2. Member 학교에는 우선적으로 미국인 교사 파견
3.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고가의 학생관리 프로그램 IEC-AMP 지원
4.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 제공 (국제학교, 대학 프로그램)
5. 학교의 여흥방학 등 특별 프로그램에 교육협력봉사단(교사) 파견 및 교사, 학생 교환 프로그램 기회 우선적 지원

예정강사



Bill Federer (국제교육협력기구(IEC) 총재), Rep. Jerry Nolte (미중리우 의회 국제교육과 Job Creation 위원장 하원의원), Rep. Lindell F. Shumake (미중리우 하원의원), Dr. James Song (Midwest University 총장), 이승중 목사 (중공국제대 이사장)



강성일 박사 (세계한인선교사협의회 대표회장), 정금태 박사 (파리과외 기록교 예술학교 이사장), 정승룡 목사 (농사랑 교회), Mr. Robb Lynch (IEC Teacher Recruitment and Training Director), 이희철 박사 (IEC-School Management (패우 GGU) Director Program Training Director), 지영민 대표

주관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IEC) 국제교육협력기구, World Christian School Network (WCSN) 세계 크리스찬 스쿨 네트워크, Federation of International Schools (FIS) (K-12)

후원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 한국 기독교 대학교 연맹, CTS 기독교 TV, 미주크리스찬 신문